WEBVTT

00:00:10.305 --> 00:00:11.608
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

00:00:11.708 --> 00:00:12.887
김태동 선생입니다.

00:00:12.987 --> 00:00:14.821
첫 번째 운문 문학부터 시작할게요.

00:00:14.921 --> 00:00:19.739
첫 번째 운문 문학의 가장 첫 번째
핵심 개념은 바로 화자입니다.

00:00:19.839 --> 00:00:22.820
제가 여러분에게 상당히 멋있는
말을 하나 할 거거든요.

00:00:22.920 --> 00:00:25.707
멋있는 말 하나 할 거니까
감동받을 준비하고 계세요.

00:00:25.807 --> 00:00:26.762
잘 보세요.

00:00:26.862 --> 00:00:29.741
문학은 사람이다, 이
말씀을 꼭 기억해두세요.

00:00:29.841 --> 00:00:30.870
되게 부끄럽네요.

00:00:30.970 --> 00:00:33.779
문학은 사람이다라고 하면
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

00:00:33.879 --> 00:00:36.657
시에서는 화자를 중심으로
이해하시면 되고요.

00:00:36.757 --> 00:00:40.791
그다음에 소설에서는 인물을
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

00:00:40.891 --> 00:00:43.304
그러니까 모든 건 사람 중심이다,
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

00:00:43.404 --> 00:00:46.208
보통 이제 자연물이 나온다고 하면

00:00:46.308 --> 00:00:49.516
현대 문학에서 자연물이 나온다고
하면 그 자연물을 통해서

00:00:49.616 --> 00:00:52.209
결국 인간의 삶을
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.

00:00:52.309 --> 00:00:54.710
인간의 삶을 이해한다고
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00:54.810 --> 00:00:57.977
그래서 문학은 사람이다, 이런
말을 제가 먼저 드리고 갈게요.

00:00:58.077 --> 00:01:00.862
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
뭐냐면 화자를 중심으로

00:01:00.962 --> 00:01:03.075
감상하시는 것이 가장
좋습니다, 아시겠죠?

00:01:03.175 --> 00:01:05.982
그러면 내용을 한번
들어가 보겠습니다.

00:01:06.082 --> 00:01:08.631
내용 첫 번째 보시면 화자라고
하는 게 나오는데요.

00:01:08.731 --> 00:01:12.914
이 화자는 첫 번째 볼까요?

00:01:13.014 --> 00:01:16.198
화자란 작품 안에서 말하는 사람으로
시인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

00:01:16.298 --> 00:01:19.820
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
대리인이 바로 이제 화자입니다.

00:01:19.920 --> 00:01:22.096
화자는 작가가 아니에요.

00:01:22.196 --> 00:01:24.519
작가일 수도 있고, 작가가
아닐 수도 있어요.

00:01:24.619 --> 00:01:28.742
예를 들어서 김소월의 시
중에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

00:01:28.842 --> 00:01:31.123
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,
뭐 이런 시가 있거든요.

00:01:31.223 --> 00:01:34.392
김소월이 한 20대 후반,
30대인데 엄마야 누나야

00:01:34.492 --> 00:01:36.588
이렇게 얘기한다는 게
좀 어울리지 않죠?

00:01:36.688 --> 00:01:38.419
소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.

00:01:38.519 --> 00:01:40.689
그러니까 화자가 똑같지는 않죠.

00:01:40.789 --> 00:01:42.985
보통 이제 시인이 작품을 써요.

00:01:43.085 --> 00:01:45.627
그런데 작품 안에서는 화자가
청자에게 말을 하듯이.

00:01:45.727 --> 00:01:48.030
물론 화자가 표면에
드러날 수도 있고요.

00:01:48.130 --> 00:01:49.709
표면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.

00:01:49.809 --> 00:01:51.102
이거 한번 볼까요?

00:01:51.202 --> 00:01:56.395
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고 얘기를
하면 이런 글자만 찾으면 돼요.

00:01:56.495 --> 00:02:00.226
나 또는 우리라는 글자만 찾으면
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,

00:02:00.326 --> 00:02:01.448
이렇게 얘기합니다.

00:02:01.548 --> 00:02:04.659
그다음에 청자가 표면에
드러날 수도 있고요.

00:02:04.759 --> 00:02:06.203
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.

00:02:06.303 --> 00:02:09.076
예를 들어서 너라고 얘기하면
청자가 드러난 건데,

00:02:09.176 --> 00:02:11.814
~야 이렇게 부르는
말이 나오잖아요.

00:02:11.914 --> 00:02:14.704
예를 들어서 갈매기야,
백구야 이렇게 얘기하면

00:02:14.804 --> 00:02:16.333
청자가 나타나 있는 거죠.

00:02:16.433 --> 00:02:21.065
아무튼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하듯이
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시고요.

00:02:21.165 --> 00:02:24.272
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그게
독자에게 전달되는 거죠.

00:02:24.372 --> 00:02:27.948
시에서 대상과 상황이라고
하면 시의 대상은 시 속에서

00:02:28.048 --> 00:02:31.189
주된 대상이 되는 것, 화자가
주요하게 이야기하는 대상.

00:02:31.289 --> 00:02:33.290
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
이야기하느냐.

00:02:33.390 --> 00:02:34.982
그게 바로 시적 대상이 되는 거고.

00:02:35.082 --> 00:02:37.101
사람이 될 수도 있고,
사물이 될 수도 있고

00:02:37.201 --> 00:02:39.713
혹은 어떤 현상과 같은
소재도 가능하겠죠.

00:02:39.813 --> 00:02:43.981
때로는 화자가 말을 건네는 대상인
청자를 지칭하기도 합니다.

00:02:44.081 --> 00:02:46.358
그러니까 대상은 상당히
여러 가지가 있어요.

00:02:46.458 --> 00:02:48.231
무엇에 대해서 시를 쓰려고 하느냐.

00:02:48.331 --> 00:02:51.503
그 무엇에 해당하는 게 바로 대상이다,
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02:51.603 --> 00:02:55.341
시적 상황은 화자 또는 시적 대상이
처해 있는 형편이나 처지,

00:02:55.441 --> 00:02:58.788
분위기, 정황 등을 일컬어서
시적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.

00:02:58.888 --> 00:03:01.568
시적 상황은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
파악하는 근거가 된다라고

00:03:01.668 --> 00:03:02.905
이야기를 했습니다.

00:03:03.005 --> 00:03:05.237
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,
뭘 이해하시면 되냐면

00:03:05.337 --> 00:03:09.104
화자가 처해 있는 배경이라고
생각하시면 돼요.

00:03:09.204 --> 00:03:13.713
시간 배경, 그다음에 공간
배경, 심지어는 시대적 배경

00:03:13.813 --> 00:03:16.383
이런 것들이 모두
상황이 되는 거죠.

00:03:16.483 --> 00:03:19.016
예를 들어서 시간이
아침이냐 저녁이냐에 따라서

00:03:19.116 --> 00:03:20.251
화자의 정서가 달라지죠.

00:03:20.351 --> 00:03:22.638
아침은 보통 활기찬
느낌이 좀 있잖아요.

00:03:22.738 --> 00:03:25.841
그런데 저녁 같은 경우는 정말
뭔가 우울하고, 음침하고,

00:03:25.941 --> 00:03:27.912
적막하고, 우울한 이런
분위기가 나타나죠.

00:03:28.012 --> 00:03:29.473
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.

00:03:29.573 --> 00:03:32.489
제가 여기에 있을 때는 선생님이지만,
다른 곳에 있을 때는

00:03:32.589 --> 00:03:34.254
또 다른 역할이 되는 거잖아요.

00:03:34.354 --> 00:03:36.950
그러니까 공간에 따라서
화자의 상황이 달라지죠.

00:03:37.050 --> 00:03:39.533
시대적인 배경에 따라서도
달라질 수 있겠죠.

00:03:39.633 --> 00:03:43.118
일제강점기냐 아니면 또 전쟁
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지겠고.

00:03:43.218 --> 00:03:46.244
1970년대 독재 상황이냐,
이런 것들에 따라서도

00:03:46.344 --> 00:03:48.807
역시 시적 상황이 달라질
수 있다는 겁니다.

00:03:48.907 --> 00:03:52.269
그러니까 상황을 파악해야지만,
그 안에서 화자가 어떤 정서를

00:03:52.369 --> 00:03:55.217
가지고 있는지, 어떤 태도를 가지고
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.

00:03:55.317 --> 00:03:57.355
화자의 어조예요.

00:03:57.455 --> 00:04:00.593
어조는 시에서 드러나는 시적
화자의 목소리가 가진 특징을

00:04:00.693 --> 00:04:04.039
바로 어조라고 하는데, 쉽게 말하면
말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

00:04:04.139 --> 00:04:06.150
주로 시어나 어미를
통해 드러나는데.

00:04:06.250 --> 00:04:10.293
어조는 시에 나타난 정서나 분위기와
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

00:04:10.393 --> 00:04:14.270
시적 화자의 정서가 변화함에 따라서
여러 상이한 어조로 변화된다.

00:04:14.370 --> 00:04:17.287
상이한 어조, 서로 다른
어조로 변화되기도 한다.

00:04:17.387 --> 00:04:21.544
그게 바로 이제 시에서 말하는 어조가
되는 거죠, 화자의 어조입니다.

00:04:21.644 --> 00:04:25.583
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 따라
냉소적, 친화적, 비판, 우호,

00:04:25.683 --> 00:04:27.770
풍자, 해학 이런
것들이 나타나는데요.

00:04:27.870 --> 00:04:29.833
유형에 따라서 이런 이런
어조들이 나타나는데.

00:04:29.933 --> 00:04:33.485
이거는 제가 이쪽으로 와서 다른 걸
하나 좀 필기를 해드릴게요, 여러분.

00:04:33.585 --> 00:04:35.722
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.

00:04:35.822 --> 00:04:38.801
화자의 태도를 찾는 건데요.

00:04:38.901 --> 00:04:40.844
이거는 제가 도식화를
한번 해봤어요.

00:04:40.944 --> 00:04:45.386
뭐냐면 처음 부분이 있고,
그다음에 뒷부분이 있다.

00:04:45.486 --> 00:04:48.195
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.

00:04:48.295 --> 00:04:50.717
앞부분하고 뒷부분을
이렇게 나누어 보면

00:04:50.817 --> 00:04:53.021
앞부분이 예를 들어서
이렇게 해볼까요?

00:04:53.121 --> 00:04:55.395
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로 바뀌어요.

00:04:55.495 --> 00:04:59.433
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
상황, 긍정적인 배경일 때

00:04:59.533 --> 00:05:01.526
동그라미로 하고.

00:05:01.626 --> 00:05:06.177
그러니까 긍정적일 때 동그라미고,
부정적일 때 세모를 칠 겁니다.

00:05:06.277 --> 00:05:09.280
처음에도 동그라미였고
나중에도 동그라미였어요.

00:05:09.380 --> 00:05:13.548
그러면 이 시 전체는 어떤
성격을 띠냐 하면 낙천적이다

00:05:13.648 --> 00:05:15.519
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.

00:05:15.619 --> 00:05:20.036
예찬적이다, 낙관적이다,
긍정적이다.

00:05:20.136 --> 00:05:22.517
뭐 이런 태도가 가능한 거예요.

00:05:22.617 --> 00:05:25.289
그다음에 세모에서 세모야.

00:05:25.389 --> 00:05:29.057
처음에도 상황이 부정적이었고,
나중에도 상황이 부정적이에요.

00:05:29.157 --> 00:05:30.392
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

00:05:30.492 --> 00:05:36.900
비관적이다, 절망적이다,
그다음에 체념적이다.

00:05:37.000 --> 00:05:39.159
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

00:05:39.259 --> 00:05:41.502
간단하게 도식화해본
겁니다, 여러분.

00:05:41.602 --> 00:05:43.883
세모에서 동그라미로 바뀌었어.

00:05:43.983 --> 00:05:47.348
어떤 부정적인 상황이었는데
시의 마지막 부분에 가 보니까

00:05:47.448 --> 00:05:48.974
긍정적 의미로 바뀌었단 말이야.

00:05:49.074 --> 00:05:52.731
그러면 의지적이다, 이렇게
얘기할 수 있고.

00:05:52.831 --> 00:05:57.755
의지적이다 또는 부정적 상황을
비판하는 것으로 봐서

00:05:57.855 --> 00:06:00.341
비판적이다, 이것도 가능하고요.

00:06:00.441 --> 00:06:04.265
부정적 상황에 대한 반성적이다,
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.

00:06:04.365 --> 00:06:07.562
그다음에 세모에서 세모인데요.

00:06:07.662 --> 00:06:09.092
위랑 똑같죠, 그렇죠?

00:06:09.192 --> 00:06:12.850
세모에서 세모인데, 이 자체를
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요.

00:06:12.950 --> 00:06:17.315
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
달관적이다, 이렇게 얘기합니다.

00:06:17.415 --> 00:06:20.120
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이
계속되지만, 그 부정적인 상황을

00:06:20.220 --> 00:06:22.326
담담하게 받아들이다
이런 뜻이거든요.

00:06:22.426 --> 00:06:24.672
그래서 달관적이다, 이렇게
얘기할 수 있죠.

00:06:24.772 --> 00:06:27.377
동그라미에서 세모가 남았죠?

00:06:27.477 --> 00:06:29.598
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
나오지 않아요.

00:06:29.698 --> 00:06:34.024
이런 것들이 바로 기본적인 태도를
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

00:06:34.124 --> 00:06:36.821
이것도 우선 기억을 해두시면
좋을 것 같습니다.

00:06:36.921 --> 00:06:39.483
그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면.

00:06:39.583 --> 00:06:42.537
님이여, 당신은 백 번이나
단련한 금결입니다.

00:06:42.637 --> 00:06:44.160
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.

00:06:44.260 --> 00:06:47.883
님에게 당신은 금결이다, 금과
같다 이렇게 얘기했고요.

00:06:47.983 --> 00:06:51.103
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
천국의 사랑을 받으옵소서.

00:06:51.203 --> 00:06:53.319
천국의 사랑 받으세요, 누구에게?

00:06:53.419 --> 00:06:54.420
님에게.

00:06:54.520 --> 00:06:56.621
님이여, 사랑이여,
아침볕의 첫걸음이여.

00:06:56.721 --> 00:07:00.411
아침 햇볕에 첫걸음을 떼는 것
같은 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.

00:07:00.511 --> 00:07:03.437
님에 대한 여성적이고 예찬적인
어조가 나타나는 거죠.

00:07:03.537 --> 00:07:06.546
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
화자의 태도를 찾는 거니까

00:07:06.646 --> 00:07:09.389
어조를 찾으면 태도가
나오는 거예요.

00:07:09.489 --> 00:07:12.572
화자의 정서, 태도가 나왔습니다.

00:07:12.672 --> 00:07:15.731
정서는 시적 화자가 시적 상황에

대해 느끼는 생각과 감정을

00:07:15.831 --> 00:07:17.338
정서라고 하고요.

00:07:17.438 --> 00:07:20.384
즉, 시적 화자가 느끼는 기쁨,
슬픔, 외로움, 쓸쓸함, 두려움,

00:07:20.484 --> 00:07:22.242
그리움 등의 심리
상태를 의미하는데.

00:07:22.342 --> 00:07:24.205
정서는 주로 시어를 매개로 하여

00:07:24.305 --> 00:07:28.364
이미지, 어조, 운율 등의
방법을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.

00:07:28.464 --> 00:07:31.506
그러니까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
것은 이렇게 한번 볼까요?

00:07:31.606 --> 00:07:34.076
서술어에 주로 많이 나타나고요.

00:07:34.176 --> 00:07:36.490
수식하는 말에도 많이 나타납니다.

00:07:36.590 --> 00:07:40.709
수식하는 말에도 화자의
정서가 나타나죠.

00:07:40.809 --> 00:07:45.214
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
여기에서 이미지, 어조, 운율

00:07:45.314 --> 00:07:49.194
이렇게 도식화하지 말고, 문맥에서
느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

00:07:49.294 --> 00:07:50.406
문맥상에서.

00:07:50.506 --> 00:07:51.673
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.

00:07:51.773 --> 00:07:54.523
여러분, 어둠이라고 하는 게 긍정적인
시어일까요, 부정적인 시어일까요?

00:07:54.623 --> 00:07:56.423
아무도 모른다는 거죠.

00:07:56.523 --> 00:07:59.956
시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
어둠이 긍정적일 수도 있거든요.

00:08:00.056 --> 00:08:03.632
그래서 문맥에서 파악하시는

게 가장 중요합니다.

00:08:03.732 --> 00:08:06.357
하나의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08:06.457 --> 00:08:10.793
제가 옛날에 한번 학생들이 시를
어려워해서 어떻게 했었냐면

00:08:10.893 --> 00:08:16.919
한글 파일로 다운받아서 한글
파일로 제가 행을 나누지 않고

00:08:17.019 --> 00:08:20.975
그냥 줄로 쭉 이렇게 이렇게
써서 학생들한테 나눠줬거든.

00:08:21.075 --> 00:08:23.314
학생들 한번 이해해
보세요라고 얘기했더니

00:08:23.414 --> 00:08:25.311
이해를 웬만큼 다 하더라고요.

00:08:25.411 --> 00:08:28.535
그러니까 이게 시라고 하는
게 압축적으로 쓰여 있고,

00:08:28.635 --> 00:08:31.469
뭔가 함축된다고 우리가
선입견을 갖다 보니까

00:08:31.569 --> 00:08:34.716
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것뿐이지
실제로 그냥 줄글을 이해한다

00:08:34.816 --> 00:08:36.642
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08:36.742 --> 00:08:38.361
볼까요?

00:08:38.461 --> 00:08:40.501
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
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.

00:08:40.601 --> 00:08:44.926
이게 바로 뭐냐면 외로운
황홀한 심사라고 하는 것이

00:08:45.026 --> 00:08:48.254
바로 화자의 정서를
나타내고 있는 거죠.

00:08:48.354 --> 00:08:51.267
그다음에 외롭다는 것과 황홀하다는
것은 좀 어울리지 않죠.

00:08:51.367 --> 00:08:56.513
외롭다는 것은 보통 마이너스 이미지,
황홀하다는 것은 플러스 이미지.

00:08:56.613 --> 00:08:58.272
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.

00:08:58.372 --> 00:09:01.896
외로운 황홀한 심사라고 얘기하면
이거는 그래서 쓰인 표현법이

00:09:01.996 --> 00:09:02.780
역설법이 됩니다.

00:09:02.880 --> 00:09:07.314
그러니까 얘는 외롭기도 하고,
그다음에 황홀하기도 해요.

00:09:07.414 --> 00:09:10.336
지금 왜 황홀하냐면 전문이
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,

00:09:10.436 --> 00:09:11.832
자식이 죽었거든요.

00:09:11.932 --> 00:09:13.227
그래서 너무 외로운 거야.

00:09:13.327 --> 00:09:18.276
그런데 겨울밤인 것 같아, 바깥에
이제 유리창을 이렇게 닦아 보니까

00:09:18.376 --> 00:09:21.406
바깥에 날개를 파닥거리고 있는
아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.

00:09:21.506 --> 00:09:23.754
그래서 황홀하다 이렇게
얘기하는 겁니다.

00:09:23.854 --> 00:09:28.621
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,
늬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.

00:09:28.721 --> 00:09:32.967
화자는 죽은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
슬픔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죠.

00:09:33.067 --> 00:09:34.345
태도를 볼까요?

00:09:34.445 --> 00:09:37.912
태도는 시적 화자가 자신이
처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세를

00:09:38.012 --> 00:09:39.820
바로 태도라고 얘기하는데.

00:09:39.920 --> 00:09:42.986
즉, 시적 대상이나 시적
상황, 독자에 대한 자세로

00:09:43.086 --> 00:09:46.581
긍정적, 부정적, 반성적,

수용적 태도 이런 것들이

00:09:46.681 --> 00:09:48.782
바로 화자의 태도가 될
수 있다는 겁니다.

00:09:48.882 --> 00:09:50.331
화자의 태도는 제가
아까 말씀드렸죠?

00:09:50.431 --> 00:09:52.395
도식화해서 표현했었습니다.

00:09:52.495 --> 00:09:55.195
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
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.

00:09:55.295 --> 00:09:57.271
이게 바로 화자의 정서죠.

00:09:57.371 --> 00:09:58.856
잎새에 이는 바람에도
나는 괴로워했다.

00:09:58.956 --> 00:09:59.815
정서예요.

00:09:59.915 --> 00:10:02.376
그럼 이건 뭐냐면 하늘
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

00:10:02.476 --> 00:10:04.909
없었으면 좋겠다는 거니까,
부끄러움이 없었으면 좋겠다,

00:10:05.009 --> 00:10:08.270
괴로워했다 이런 정서를 통해서
부끄러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

00:10:08.370 --> 00:10:09.774
화자의 태도가 나타나 있죠.

00:10:09.874 --> 00:10:12.583
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
있고,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

00:10:12.683 --> 00:10:14.198
알 수 있습니다.

00:10:14.298 --> 00:10:16.352
반성적 태도가 나타난 거죠.

00:10:16.452 --> 00:10:18.711
문제로 개념 확인
한번 해보겠습니다.

00:10:18.811 --> 00:10:20.978
시 속에서 말하는
사람을 뭐라고 하죠?

00:10:21.078 --> 00:10:26.060

시적 화자 또는 시적
자아라고 얘기합니다.

00:10:26.160 --> 00:10:27.520
두 가지 다 돼요.

00:10:27.620 --> 00:10:30.252
님이여, 당신은 백 번이나
단련한 금결입니다.

00:10:30.352 --> 00:10:33.897
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
천국의 사랑을 받으옵소서.

00:10:33.997 --> 00:10:36.815
예찬적인 태도가 나타나
있다, 이렇게 얘기하죠.

00:10:36.915 --> 00:10:40.017
냉소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
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때

00:10:40.117 --> 00:10:41.582
그걸 냉소적이라고 얘기합니다.

00:10:41.682 --> 00:10:45.351
다음 시를 읽고 알맞은 말을
한번 골라 봐라라고 얘기했는데.

00:10:45.451 --> 00:10:49.866
까마득한 날에, 이 작품은
이육사의 광야라는 작품이에요.

00:10:49.966 --> 00:10:53.844
배경 지식을 제가 하나도 설명
안 하고 이 내용만 보고

00:10:53.944 --> 00:10:58.442
이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
확인해 보겠습니다, 아시겠죠?

00:10:58.542 --> 00:11:02.830
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시의 의미는
상징적 의미가 엄청나게 많거든요.

00:11:02.930 --> 00:11:06.619
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전제로
처음 본다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

00:11:06.719 --> 00:11:08.513
한번 풀어볼게요.

00:11:08.613 --> 00:11:12.056
여기 보니까 시적 화자가 나냐
초인이냐 이거 확인하는 거고.

00:11:12.156 --> 00:11:14.458
어떤 어조를 가지고
있는지 확인하는 거고.

00:11:14.558 --> 00:11:18.144

미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
있는지 확인하는 거니까, 가볼게요.

00:11:18.244 --> 00:11:21.272
까마득한 날에, 과거를
나타내는 것 같죠?

00:11:21.372 --> 00:11:24.816
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
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.

00:11:24.916 --> 00:11:26.556
설의적 표현이 쓰였네.

00:11:26.656 --> 00:11:28.473
닭 우는 소리조차 없었다는 거예요.

00:11:28.573 --> 00:11:31.594
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
사랑해서 휘달릴 때도

00:11:31.694 --> 00:11:33.779
참아 이곳을 범하지 못했다.

00:11:33.879 --> 00:11:35.441
이곳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.

00:11:35.541 --> 00:11:37.466
제목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네.

00:11:37.566 --> 00:11:39.706
이곳은 아무튼 침범하지
못했다는 거야.

00:11:39.806 --> 00:11:43.462
끊임없는 광음을, 광음은
좀 어려운 단어입니다.

00:11:43.562 --> 00:11:44.815
세월이라는 뜻이야.

00:11:44.915 --> 00:11:47.469
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,
이게 무슨 뜻일까요?

00:11:47.569 --> 00:11:50.124
계절이 꽃처럼 피었다
진다는 거예요.

00:11:50.224 --> 00:11:52.736
계절이 계속해서 피었다
지고 피었다 지니까

00:11:52.836 --> 00:11:55.839
계절이 계속해서 흘러갔다는 얘기니까
시간이 흘러갔다는 뜻이에요.

00:11:55.939 --> 00:11:58.530
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.

00:11:58.630 --> 00:12:01.096

이거 뭐 상징적인 거
설명해주고 싶다, 얘들아.

00:12:01.196 --> 00:12:04.274
강물이 비로소 아무튼
길을 열었대요.

00:12:04.374 --> 00:12:07.916
지금 눈 내리고, 나리고
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.

00:12:08.016 --> 00:12:10.150
내가, 나라는 사람이 나왔죠.

00:12:10.250 --> 00:12:11.495
그러니까 얘가 화자예요.

00:12:11.595 --> 00:12:13.125
화자가 표면에 드러나
있는 거잖아요.

00:12:13.225 --> 00:12:15.275
내가 여기 가난한
노래의 씨를 뿌려.

00:12:15.375 --> 00:12:17.398
노래의 씨를 뿌렸어.

00:12:17.498 --> 00:12:19.599
다시 천고의 뒤에, 이거는 미래죠?

00:12:19.699 --> 00:12:22.430
미래에 백마를 타고 오는
초인이 있을 거야.

00:12:22.530 --> 00:12:25.772
그러면 이 광야에서 목 놓아
부르게 하리라, 뭘 불러요?

00:12:25.872 --> 00:12:30.339
노래의 씨를 내가 뿌렸으니까 노래를
부르게 하리라, 이렇게 얘기했어요.

00:12:30.439 --> 00:12:33.293
의지적인 어조다, 우리 말투를
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.

00:12:33.393 --> 00:12:37.991
하리라, 이걸 통해서 의지적인
태도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.

00:12:38.091 --> 00:12:42.580
다시 천고의 뒤에, 오랜 세월 뒤에
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을 거예요.

00:12:42.680 --> 00:12:45.222
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목
놓아 부르게 하리라.

00:12:45.322 --> 00:12:48.150
내가 노래의 씨를 뿌려주면

그 광야에서 초인이

00:12:48.250 --> 00:12:51.157
노래를 부르게 하리라라고
했으니까 의지적이죠.

00:12:51.257 --> 00:12:54.688
어조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으며
화자는 미래에 대해 어떤 태도?

00:12:54.788 --> 00:12:57.473
낙관적인 태도죠,
낙관적인 태도예요.

00:12:57.573 --> 00:12:58.344
왜?

00:12:58.444 --> 00:13:00.069
나는 노래의 씨를 뿌려두는 거예요.

00:13:00.169 --> 00:13:01.959
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
씨를 뿌리겠니?

00:13:02.059 --> 00:13:05.206
씨를 뿌린다는 얘기는 나중에 거두어들일
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

00:13:05.306 --> 00:13:06.453
씨를 뿌리는 거 아닙니까?

00:13:06.553 --> 00:13:08.936
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
태도를 보여주고 있다,

00:13:09.036 --> 00:13:10.567
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.

00:13:10.667 --> 00:13:13.570
그러면 이 작품에 대한
배경 지식 이런 것들보다도

00:13:13.670 --> 00:13:16.494
여러분하고 제가 지금 하고
싶은 건 바로 뭐냐면

00:13:16.594 --> 00:13:19.275
이 시에서 이런 이런 내용들을
어떻게 읽어낼 수 있느냐.

00:13:19.375 --> 00:13:21.724
이 과정들이 상당히
중요한 것 같고.

00:13:21.824 --> 00:13:25.107
그다음에 처음 보는 작품을 어떻게
해결하느냐, 이게 제일 중요하죠.

00:13:25.207 --> 00:13:27.165
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될 게.

00:13:27.265 --> 00:13:32.209
그러면 첫 번째 유형 연습
1번으로 들어가면 구름의 파수병,

00:13:32.309 --> 00:13:35.472
느낌 극락 같은이라고
하는 작품이 있습니다.

00:13:35.572 --> 00:13:39.842
이거는 여러분, 제가 뭐부터 볼
거냐면 문제부터 한번 볼 겁니다.

00:13:39.942 --> 00:13:41.406
여러분,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.

00:13:41.506 --> 00:13:43.487
저기 뒤로 가면 좀 멀 것
같은데, 가볼까요, 한번?

00:13:43.587 --> 00:13:44.951
문제부터 볼 건데.

00:13:45.051 --> 00:13:46.420
엄청나게 길죠?

00:13:46.520 --> 00:13:48.109
보세요, 문제부터 보겠습니다.

00:13:48.209 --> 00:13:50.637
대표 유형, 문제
유형부터 한번 보면.

00:13:50.737 --> 00:13:53.247
1번, (가)의 내용을
이해한 것으로

00:13:53.347 --> 00:13:56.406
가장 적절한 것을
찾아라라고 얘기했는데.

00:13:56.506 --> 00:14:00.504
이런 문제는 바로 뭐냐면
(가) 작품 전체에 대한

00:14:00.604 --> 00:14:02.676
종합적인 이해가 나타나
있는 거예요.

00:14:02.776 --> 00:14:04.339
(가) 작품 전체에
대한 종합적인 이해죠.

00:14:04.439 --> 00:14:08.843
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전부 다 화자는,
화자는, 화자는 이렇게 나왔고.

00:14:08.943 --> 00:14:11.090
중간에 이렇게 따옴표
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

00:14:11.190 --> 00:14:16.867

그 안에 있는 내용들, 그
안에 있는 주위, 물건들,

00:14:16.967 --> 00:14:21.060
그다음에 나의 친구, 그다음에
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

00:14:21.160 --> 00:14:24.493
이런 내용들이 문맥적으로
어떻게 이해가 되느냐.

00:14:24.593 --> 00:14:26.137
이거 찾고 있는 거예요.

00:14:26.237 --> 00:14:30.359
시행의 기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
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

00:14:30.459 --> 00:14:33.892
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
바로 해결하시는 것도

00:14:33.992 --> 00:14:35.343
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.

00:14:35.443 --> 00:14:38.091
(가)의 내용을 이해할
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

00:14:38.191 --> 00:14:41.969
(가)를 읽은 다음에 주위,
물건 이런 말이 딱 나왔어.

00:14:42.069 --> 00:14:45.723
그러면 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면서
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.

00:14:45.823 --> 00:14:49.054
그다음에 2번을 보시면
보기를 고려해서

00:14:49.154 --> 00:14:51.308
(가)를 감상한 내용으로
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14:51.408 --> 00:14:53.965
2번 문제는 보기가
상당히 중요해요.

00:14:54.065 --> 00:14:55.048
왜?

00:14:55.148 --> 00:14:58.844
(가)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
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문제가

00:14:58.944 --> 00:15:01.026
바로 2번 문제거든요,
2번 문제 보시면.

00:15:01.126 --> 00:15:04.993

그러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
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

00:15:05.093 --> 00:15:08.302
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해서
감상한다, 이렇게 얘기합니다.

00:15:08.402 --> 00:15:12.015
외적 준거라고 하는 게 바깥에
있는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.

00:15:12.115 --> 00:15:13.875
그러니까 보기라는 얘기예요, 그냥.

00:15:13.975 --> 00:15:15.001
보세요.

00:15:15.101 --> 00:15:17.132
구름의 파수병이라는
작품입니다, (가) 작품은.

00:15:17.232 --> 00:15:22.801
시와 생활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
진솔한 자기 성찰이 드러나 있다.

00:15:22.901 --> 00:15:26.817
그러면 이 (가) 작품을
보면 미리 메모해 볼까요?

00:15:26.917 --> 00:15:31.258
(가)에서는 시라고 하는 것과
생활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

00:15:31.358 --> 00:15:34.748
갈등을 하고 있고, 자기
성찰을 하고 있는 거니까

00:15:34.848 --> 00:15:37.930
뭔가 반성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죠.

00:15:38.030 --> 00:15:41.351
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
보면 이 사람은 시인이잖아?

00:15:41.451 --> 00:15:43.654
그런데 생활이 너무 어려운
것 같아, 그렇죠?

00:15:43.754 --> 00:15:45.423
그런 것까지 우리 생각할
수 있잖아요, 그렇죠?

00:15:45.523 --> 00:15:47.087
생활이 너무 어려워.

00:15:47.187 --> 00:15:49.197
그런데 시를 써야겠다는
생각도 있어.

00:15:49.297 --> 00:15:51.189
그런데 너무 생활에

매몰되는 것 같아.

00:15:51.289 --> 00:15:52.931
그래도 시를 써야 될 것 같아.

00:15:53.031 --> 00:15:56.944
이런 갈등들이 나타나 있을 거라고
하는 걸 이걸 통해 짐작할 수 있죠.

00:15:57.044 --> 00:16:00.672
보면 생활에 몰두하려는
자와, 무슨 뜻이야?

00:16:00.772 --> 00:16:03.280
생활에 몰두한다는 건 먹고살아야
되잖아요, 그렇죠?

00:16:03.380 --> 00:16:05.607
옛날에 제가 꿈이 시인이었습니다.

00:16:05.707 --> 00:16:09.196
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부를
엄청 잘했어요, 제가.

00:16:09.296 --> 00:16:10.509
제가 잘했어요.

00:16:10.609 --> 00:16:15.156
23등까지 해봤어요, 전국에서
23등까지 해봤는데, 잘했죠?

00:16:15.256 --> 00:16:18.796
고등학교 2학년 딱 올라갈 때
선생님이 시인이 되어야겠다,

00:16:18.896 --> 00:16:19.690
이런 생각을 한 거야.

00:16:19.790 --> 00:16:21.634
고등학교 1학년 때
동아리가 되게 중요합니다.

00:16:21.734 --> 00:16:22.924
나비효과예요.

00:16:23.024 --> 00:16:24.915
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
여기 있는 거예요.

00:16:25.015 --> 00:16:30.662
그때 동아리가 있었는데, 뭐였냐면
지금도 명맥이 유지되고 있던데,

00:16:30.762 --> 00:16:32.226
시 창작 동아리였습니다.

00:16:32.326 --> 00:16:34.321
동해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.

00:16:34.421 --> 00:16:36.225
어디 학교인지 제가

얘기 안 할게요.

00:16:36.325 --> 00:16:41.641
그런데 그때 제가 시 창작 동아리에
들었고, 거기 매력에 빠진 거죠.

00:16:41.741 --> 00:16:44.192
그래서 제가 시인이
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

00:16:44.292 --> 00:16:46.182
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
많이 안 했어요.

00:16:46.282 --> 00:16:47.126
거의 안 했죠.

00:16:47.226 --> 00:16:49.767
특히 제가 시인이 되어야겠다고
생각을 한 게 뭐냐면

00:16:49.867 --> 00:16:51.905
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세웠어요.

00:16:52.005 --> 00:16:53.806
택시 운전을 하면서 시를 써야겠다.

00:16:53.906 --> 00:16:54.707
왜?

00:16:54.807 --> 00:16:56.151
먹고살긴 살아야 되니까.

00:16:56.251 --> 00:17:00.735
그리고 또 하나, 택시 운전을 하면
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.

00:17:00.835 --> 00:17:04.322
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
좀 시로 풀어내고 싶다,

00:17:04.422 --> 00:17:05.729
이런 생각이 든 거야.

00:17:05.829 --> 00:17:07.472
그때부터 수학 문제 풀겠니?

00:17:07.572 --> 00:17:10.588
운전할 때, 오른쪽 우회전
할 때 미적분 계산해서

00:17:10.688 --> 00:17:12.081
운전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.

00:17:12.181 --> 00:17:14.487
영어도 아예 필요 없다,
이런 생각을 한 거죠.

00:17:14.587 --> 00:17:16.426
외국인 안 태우면 되지,
이 생각을 한 거예요.

00:17:16.526 --> 00:17:19.258
고등학교 2년 동안
공부를 거의 못 했죠.

00:17:19.358 --> 00:17:22.117
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올라올
때 저희 어머니 때문에

00:17:22.217 --> 00:17:25.766
극적인 상황이 있어서 제가
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.

00:17:25.866 --> 00:17:28.571
그러니까 이게 생활에 몰두할
수밖에 없는 모습이

00:17:28.671 --> 00:17:33.104
제가 택시 운전이라고 하는 것을
통해서도 또 이제 나타나는 거고.

00:17:33.204 --> 00:17:35.174
진짜 시인이 꿈이었습니다.

00:17:35.274 --> 00:17:39.557
원시인 말고요, 진짜 시인이
꿈이었는데 그게 실제로 나중에

00:17:39.657 --> 00:17:42.878
대학교 올라와서 시를 공부하다
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.

00:17:42.978 --> 00:17:45.379
제가 감히 할 수 없는
일이다, 이렇게 생각해서

00:17:45.479 --> 00:17:51.820
그래도 남이 쓴 시를 이렇게 분석해
보고 같이 감상해보는 직업이 됐죠.

00:17:51.920 --> 00:17:53.729
그런 상황입니다.

00:17:53.829 --> 00:17:56.222
생활에 몰두하려는 자아는
어떤 건지 알겠죠, 여러분?

00:17:56.322 --> 00:17:58.238
먹고살아야죠, 어쩔 수 없잖아요.

00:17:58.338 --> 00:18:00.067
이러한 자아를 극복하고자 하면서

00:18:00.167 --> 00:18:03.158
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
자아를 등장시킨다.

00:18:03.258 --> 00:18:09.854
그러면 시를 지향하는 것은 ㉡이고,
생활에 매몰되는 건 바로 ㉠이었어요.

00:18:09.954 --> 00:18:13.820
㉠은 시선을 고정하려는 태도나
움츠러들어 있는 이미지로 나타난다.

00:18:13.920 --> 00:18:14.696
보세요.

00:18:14.796 --> 00:18:19.435
얘는 시선을 고정하거나
아니면 움츠러들었다.

00:18:19.535 --> 00:18:20.763
이렇게 메모를 해두세요.

00:18:20.863 --> 00:18:26.638
그러고 나서 시 위에 읽을 때 이
부분은 생활에 매몰된 모습이구나.

00:18:26.738 --> 00:18:29.251
이 부분은 시를 새롭게
해석하려는 모습이구나.

00:18:29.351 --> 00:18:31.086
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.

00:18:31.186 --> 00:18:35.117
그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㉠에서
벗어나 ㉡으로 변모하고자 하는

00:18:35.217 --> 00:18:38.555
화자는 날아간 제비를 떠올리다가
반역의 정신을 추구한다.

00:18:38.655 --> 00:18:43.994
그럼 결국 ㉡에 해당하는 건
바로 뭐냐면 날아간 제비입니다.

00:18:44.094 --> 00:18:45.897
날아간 제비예요.

00:18:45.997 --> 00:18:49.336
그다음에 반역의 정신을 추구한대.

00:18:49.436 --> 00:18:52.477
이런 메모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.

00:18:52.577 --> 00:18:55.822
그래야지만 (가) 작품을
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.

00:18:55.922 --> 00:18:58.739
(가) 작품을 이해할 때는
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

00:18:58.839 --> 00:19:03.635
㉠처럼 생활에 매몰된
고정되고 움츠러들고

00:19:03.735 --> 00:19:08.074
이런 이미지가 나타나 있다가
날아가자, 반역의 정신을 추구하자

00:19:08.174 --> 00:19:10.383
이런 내용들이 언급될
거라는 얘기죠.

00:19:10.483 --> 00:19:13.148
그걸 바탕으로 해서 (가)
작품을 이해할 수 있어요.

00:19:13.248 --> 00:19:16.179
대표적인 유형입니다, 이 문제도.

00:19:16.279 --> 00:19:19.333
그럼 여기 보면 내가 시와는
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에서

00:19:19.433 --> 00:19:24.149
진솔한 성찰, 답은 이거
1번 무조건 적절하다는 거

00:19:24.249 --> 00:19:26.248
보기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.

00:19:26.348 --> 00:19:30.152
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그
내용을 통해서 확인해야죠.

00:19:30.252 --> 00:19:33.453
문제 유형이 이러이러하다는
거 먼저 알아 두시고.

00:19:33.553 --> 00:19:38.120
3번을 보면 [A]와 [B]에 대한
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라라고

00:19:38.220 --> 00:19:41.057
얘기했는데, 부분 부분에
대한 해석 문제였어요.

00:19:41.157 --> 00:19:45.635
특히 이 글은 무엇이 나타나 있냐면
(가)에 시 작품이 하나 나오고,

00:19:45.735 --> 00:19:48.617
(나)라고 하는 희곡
작품이 연계되어 있는

00:19:48.717 --> 00:19:50.386
아주 새로운 유형의 문제였거든요.

00:19:50.486 --> 00:19:54.782
그래서 이건 [A]와 [B]의
부분에 대한 해석 문제였고,

00:19:54.882 --> 00:19:56.816
표현법에 대한 문제도 나왔죠.

00:19:56.916 --> 00:20:00.324
여기 반어적인 것도 나왔고,
그다음에 대상에 만족한다,

00:20:00.424 --> 00:20:03.155
의미가 확장되는 대상들이
연쇄되었다, 나열하고 있다.

00:20:03.255 --> 00:20:07.698
이건 [A], [B] 부분을 보면서
선택지랑 비교하면서 풀면 되겠죠.

00:20:07.798 --> 00:20:11.366
4번을 보면 무대 상연을 전제로
하는 희곡의 특성을 고려할 때

00:20:11.466 --> 00:20:14.991
ⓐ~ⓔ에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
적절한 것을 골라라라고 얘기했는데

00:20:15.091 --> 00:20:18.073
이거는 그 장면을 상상해
보시면서 읽으셔야 돼요.

00:20:18.173 --> 00:20:22.573
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서 이 ⓐ
부분, ⓑ 부분, ⓒ 부분,

00:20:22.673 --> 00:20:28.849
여기 마지막 부분까지 희곡에서
이게 어떻게 무대에서 드러날까,

00:20:28.949 --> 00:20:33.705
어떻게 구현이 될까, 이걸 우리가
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죠.

00:20:33.805 --> 00:20:37.579
사실은 이 희곡이나 아니면
소설이나 어려워하는 학생들은

00:20:37.679 --> 00:20:39.652
머릿속에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.

00:20:39.752 --> 00:20:42.947
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래요,
상상력이 부족해서.

00:20:43.047 --> 00:20:47.117
그러니까 만약에 드라마나 이런
것을 여기 TV 화면 보여주고

00:20:47.217 --> 00:20:50.271
여러분 문제 풀라 그러면 무조건
100% 다 맞을 걸요?

00:20:50.371 --> 00:20:51.485
다 맞을 수 있어요.

00:20:51.585 --> 00:20:54.328
왜냐하면 그 사람이 등장하자마자
그 사람이 좋은 놈인지

00:20:54.428 --> 00:20:56.155
나쁜 놈인지 알 수 있잖아요.

00:20:56.255 --> 00:20:58.523
그 사람이 옷 입은 거라든가
그 사람의 생김새라든가

00:20:58.623 --> 00:21:00.266
심지어 얼굴이 까맣다면
나쁜 놈이다?

00:21:00.366 --> 00:21:02.009
제가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아요.

00:21:02.109 --> 00:21:04.381
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
생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,

00:21:04.481 --> 00:21:07.884
말투에 따라 달라지고, 멀끔하게
생겼는데도 뭔가 얍삽하게

00:21:07.984 --> 00:21:10.640
야비하게 얘기하고 그러면
나쁜 놈이라고 할 수 있죠.

00:21:10.740 --> 00:21:12.829
대화하는 사람들을 보면서
서로 표정을 보면

00:21:12.929 --> 00:21:15.289
그 사람을 좋아하는지
싫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.

00:21:15.389 --> 00:21:18.309
물론 그 사람이 연기를 얼마나
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,

00:21:18.409 --> 00:21:20.598
그래서 연기력 논란이
나오는 거예요.

00:21:20.698 --> 00:21:23.828
우리가 그 사람의 심리 이런
것들을 우리가 그 표정이나

00:21:23.928 --> 00:21:27.447
말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
확실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느냐

00:21:27.547 --> 00:21:28.730
이런 거니까요.

00:21:28.830 --> 00:21:31.126
그런데 그걸 소설이나 딱
이렇게 만들어 버리면

00:21:31.226 --> 00:21:34.445
글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
거죠, 글로 나와 있으니까.

00:21:34.545 --> 00:21:37.712
이게 머릿속에 그 장면들이 상상이
되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.

00:21:37.812 --> 00:21:41.114
4번 문제는 그 무대를 상상하면서
문제를 풀어 보는 거고요.

00:21:41.214 --> 00:21:44.357
5번을 보면 보기를 바탕으로
(가), (나)를 감상한 내용으로

00:21:44.457 --> 00:21:45.468
적절하지 않은 것.

00:21:45.568 --> 00:21:46.611
힌트가 또 나왔어요.

00:21:46.711 --> 00:21:48.687
어렵나 봐요, (가), (나)가.

00:21:48.787 --> 00:21:51.490
(가)의 공간이 화자의 내면이
투영된 상징적 공간이라면.

00:21:51.590 --> 00:21:54.866
(가)의 내용을 보니까
내면이 투영된 공간이다.

00:21:54.966 --> 00:21:57.107
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
좀 하고 가죠.

00:21:57.207 --> 00:22:00.181
(나)의 공간은 제한된 시간
내에 압축해서 보여줘야 하는

00:22:00.281 --> 00:22:03.453
극의 특성상 극 중 인물의
현실이 상징화된 공간이다.

00:22:03.553 --> 00:22:07.173
(나)에서는 현실이
상징화된 공간이 바로

00:22:07.273 --> 00:22:09.737
희곡 작품 안에 있는 공간이겠죠.

00:22:09.837 --> 00:22:11.731
공간의 의미에 대해서 나왔네.

00:22:11.831 --> 00:22:15.365
(가)와 (나)에서 공간들은 때로
대비되면서, 대비는 뭡니까?

00:22:15.465 --> 00:22:19.844
서로 차이점, 비교되면서 여러
가지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라고

00:22:19.944 --> 00:22:20.981
얘기했습니다.

00:22:21.081 --> 00:22:24.064
그러면 (가)에서 집과 거리는

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.

00:22:24.164 --> 00:22:28.338
(나)에서는 어떻다, (나)에서는
어떻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.

00:22:28.438 --> 00:22:30.276
그 내용들은 나올 때마다.

00:22:30.376 --> 00:22:33.600
여러분, 그래서 모의고사에
보면 글을 읽다 보면

00:22:33.700 --> 00:22:35.602
좀 진한 글씨로 나온
게 있을 거예요.

00:22:35.702 --> 00:22:38.838
그거 딱 나오는 순간 그 문제에
해당하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서

00:22:38.938 --> 00:22:41.511
문제 푸는 것도 방법
중의 하나예요.

00:22:41.611 --> 00:22:44.588
6번을 보면 (나)의
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

00:22:44.688 --> 00:22:46.878
적절하지 않은 것을
찾아라 그랬는데.

00:22:46.978 --> 00:22:50.672
등장인물들의 성격을
파악하는 문제예요.

00:22:50.772 --> 00:22:54.606
보면 이런 이런 대사에서
함이정이라는 인물이 나오겠죠.

00:22:54.706 --> 00:22:56.531
동연아, 서연아 어디 있느냐.

00:22:56.631 --> 00:22:57.931
함묘진이라는 인물이 나오네요.

00:22:58.031 --> 00:23:01.825
함이정하고 함묘진은 둘 다 함씨니까
뭔가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.

00:23:01.925 --> 00:23:05.124
조승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네요.

00:23:05.224 --> 00:23:10.337
그다음에 서연이라고 하는 인물도
나오고, 동연이라는 인물도 나오네.

00:23:10.437 --> 00:23:11.661
서연과 동연이라는 인물도 나오네.

00:23:11.761 --> 00:23:13.553
벌써 인물들 다 나왔습니다.

00:23:13.653 --> 00:23:19.909
서연, 동연, 함묘진, 함이정.

00:23:20.009 --> 00:23:21.653
대충 쓴 겁니다.

00:23:21.753 --> 00:23:26.119
조숭인, 뭐 이런 식으로 다섯 명의
인물이 등장한다는 거 알 수 있죠.

00:23:26.219 --> 00:23:28.316
그다음에 서연이라고 하는 인물은

00:23:28.416 --> 00:23:31.274
주제 의식을 전달하는 인물
중의 하나로 기능한다.

00:23:31.374 --> 00:23:33.329
여기까지 문제를 전부
다 살펴봤어요.

00:23:33.429 --> 00:23:37.260
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먼저
살펴보시는 게 좋아요, 여러분.

00:23:37.360 --> 00:23:42.130
살펴보시면서 앞에 나오는 시를
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

00:23:42.230 --> 00:23:43.219
앞에 시가 상당히 멀죠?

00:23:43.319 --> 00:23:44.107
가볼까요?

00:23:44.207 --> 00:23:45.322
여기입니다.

00:23:45.422 --> 00:23:46.585
첫 번째 보겠습니다.

00:23:46.685 --> 00:23:48.733
구름의 파수병이라고
하는 작품인데요.

00:23:48.833 --> 00:23:52.516
중간중간에 굵은 글씨가 된
부분이 있을 겁니다.

00:23:52.616 --> 00:23:55.782
그런 문제가 나오면 문제로
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

00:23:55.882 --> 00:23:57.708
이렇게 하는 방법으로
한번 가볼게요.

00:23:57.808 --> 00:24:02.132

제목이 구름의 파수병입니다.

00:24:02.232 --> 00:24:05.565
작가가 누구냐면
김수영이라는 사람이에요.

00:24:05.665 --> 00:24:09.174
물론 이 김수영이라는 작가를
알면 훨씬 더 좋겠죠.

00:24:09.274 --> 00:24:12.540
물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만
그냥 제가 참고로 설명드리면

00:24:12.640 --> 00:24:16.750
김수영이라고 하는 인물은
1960년대를 대표하는 인물이고요.

00:24:16.850 --> 00:24:21.305
그다음에 끊임없이 소시민적 근성에
대한 비판을 합니다, 어렵죠?

00:24:21.405 --> 00:24:23.966
현실 비판적인 시를 쓰고
소시민에 대한 비판.

00:24:24.066 --> 00:24:27.102
소시민은 뭐냐면 현실의
문제에 대해서

00:24:27.202 --> 00:24:29.950
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,
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

00:24:30.050 --> 00:24:32.322
이런 사람을 바로
소시민이라고 하거든요.

00:24:32.422 --> 00:24:35.363
그런 소시민에 대한 비판
의식을 갖고 있는 시인이

00:24:35.463 --> 00:24:37.784
바로 김수영이라고
하는 시인이었습니다.

00:24:37.884 --> 00:24:39.812
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.

00:24:39.912 --> 00:24:41.044
우선 첫 번째 볼까요?

00:24:41.144 --> 00:24:45.157
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
들여다본다고 하자.

00:24:45.257 --> 00:24:53.083
그럼 우리가 뒤에 문제에서 화자가
지금 뭘 하고 있다 그랬냐면

00:24:53.183 --> 00:24:55.389

자아 성찰을 하고 있다,
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.

00:24:55.489 --> 00:24:56.593
기억하시나요?

00:24:56.693 --> 00:25:00.203
시와 생활이 서로 대립되는
이런 내용이 나왔었잖아요.

00:25:00.303 --> 00:25:03.345
그러면 그걸 통해서
만약에 나라는 사람을

00:25:03.445 --> 00:25:07.546
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라고
하는 게 뭔가 성찰하고 있구나,

00:25:07.646 --> 00:25:10.382
이것도 우리가 짐작할
수 있겠죠, 그렇죠?

00:25:10.482 --> 00:25:12.814
성찰하고 있구나, 이것도
짐작할 수 있겠고.

00:25:12.914 --> 00:25:16.713
그다음에 이게 바로 현재
화자의 상황이구나.

00:25:16.813 --> 00:25:19.176
이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.

00:25:19.276 --> 00:25:20.666
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죠,
메모하셔도 되고.

00:25:20.766 --> 00:25:23.624
나라는 사람을 유심히
들여다본다고 하자.

00:25:23.724 --> 00:25:27.988
그러면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
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 것이다.

00:25:28.088 --> 00:25:30.431
시와는 반역된 생활을
한다는 게 뭐죠?

00:25:30.531 --> 00:25:33.661
시와 반역된 생활이라고
하는 거니까 부정적입니다.

00:25:33.761 --> 00:25:37.112
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고
있는 거냐면 아까 나왔어요.

00:25:37.212 --> 00:25:41.038
생활에 매몰된 삶을 살고 있구나,
이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.

00:25:41.138 --> 00:25:44.888
생활에 매몰된 삶을, 즉
현실적 삶에 몰두하고 있는

00:25:44.988 --> 00:25:47.754
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걸
알 수 있다는 거예요.

00:25:47.854 --> 00:25:51.793
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를
뒤에서 살짝 보고 가도 좋은데.

00:25:51.893 --> 00:25:55.552
제가 우선은 처음이니까 여러분,
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

00:25:55.652 --> 00:25:57.639
한번 보면서 가도 될 것 같아요.

00:25:57.739 --> 00:26:02.249
그러면 2번에 1번 보면 내가 시와는
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에서

00:26:02.349 --> 00:26:04.829
화자의 진솔한 성찰의
어조가 느껴지는구나.

00:26:04.929 --> 00:26:08.334
적절하죠, 자기 자신을 위에서
성찰한다고 얘기했으니까.

00:26:08.434 --> 00:26:11.394
그럼 2번에 1번 바로 이렇게
딱 지우고 다시 와도 돼요.

00:26:11.494 --> 00:26:14.795
물론 왼쪽 시가 이렇게
긴밀하게 연결되는 관계를 보려면

00:26:14.895 --> 00:26:17.854
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좀 힘들
수 있겠지만, 문제 푸는 건

00:26:17.954 --> 00:26:19.914
여러분이 더 적절한
걸 찾으셔야 돼요.

00:26:20.014 --> 00:26:23.521
시를 그냥 다 읽고 나서 아예
오른쪽 문제를 쫙 풀 것인가.

00:26:23.621 --> 00:26:25.272
아니면 왔다 갔다
하면서 풀 것인가.

00:26:25.372 --> 00:26:29.277
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
건 좋은 방법을 이렇게 이렇게

00:26:29.377 --> 00:26:32.105
조언해드리는 거지 이렇게 반드시

하세요 이건 아니거든요.

00:26:32.205 --> 00:26:35.685
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
찾으시는 게 좋습니다.

00:26:35.785 --> 00:26:39.253
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
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.

00:26:39.353 --> 00:26:42.429
먼 산정에 서 있는 마음으로.

00:26:42.529 --> 00:26:46.115
이게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?

00:26:46.215 --> 00:26:48.796
딱 이것만 보고 생각하면
절대 안 돼요, 여러분.

00:26:48.896 --> 00:26:53.301
딱 이것만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
나머지 내용들과 함께 보셔야죠.

00:26:53.401 --> 00:26:57.599
먼 산정에 서 있는
마음으로, 뭐 하고 있어?

00:26:57.699 --> 00:27:03.307
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주위에
놓인 잡스러운 물건을 보고 있다.

00:27:03.407 --> 00:27:06.503
이거는 생활과 관련된 말
아니겠습니까, 그렇죠?

00:27:06.603 --> 00:27:09.746
그런 마음으로 이 생활과 관련된,
시를 보고 있는 게 아니죠.

00:27:09.846 --> 00:27:12.727
시를 쓰는 걸 보는 게 아니라
자식 어떻게 키우지?

00:27:12.827 --> 00:27:14.934
아내한테 어떻게 부끄럽지 않지?

00:27:15.034 --> 00:27:18.304
내 주변에 잡스러운 물건, 저
물건들 어떻게 사야 되지?

00:27:18.404 --> 00:27:20.036
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니까.

00:27:20.136 --> 00:27:23.725
그럼 여기에서 먼 산정이라고 하는
것은 무엇을 보기 위한 거야?

00:27:23.825 --> 00:27:26.952
현실을 보기 위한 걸까,
시를 보기 위한 걸까요?

00:27:27.052 --> 00:27:29.999
그렇죠, 현실을 보기
위한 장소겠죠.

00:27:30.099 --> 00:27:31.339
현실과 관련된 거야.

00:27:31.439 --> 00:27:33.906
즉, 다시 말하면
생활과 관련된 장소가

00:27:34.006 --> 00:27:36.221
먼 산정이라고 하는
걸 알 수 있어요.

00:27:36.321 --> 00:27:38.386
그러면 먼 산정에 대한 문제가.

00:27:38.486 --> 00:27:40.533
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좀
귀찮기도 하다, 그렇지?

00:27:40.633 --> 00:27:45.385
먼 산정에 대한 내용이 어디
있지, 못 찾겠습니다.

00:27:45.485 --> 00:27:48.714
여기 있다, 5번에 2번
선택지에 나왔네요.

00:27:48.814 --> 00:27:53.730
5번에 2번 선택지에 보면
(가)에서 생활 공간과 대비되는

00:27:53.830 --> 00:27:57.587
먼 산정은 화자가 자신의
현실을 응시하기 위한

00:27:57.687 --> 00:28:00.388
산정한 공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.

00:28:00.488 --> 00:28:03.600
즉, 여기에서 나오는 먼 산정에
있는 서 있는 마음으로,

00:28:03.700 --> 00:28:07.902
지금 현재 이런 마음으로 현실을
바라보고 있는 곳이 먼 산정이잖아요.

00:28:08.002 --> 00:28:11.421
그러면 이 먼 산정이라고 하는
것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

00:28:11.521 --> 00:28:13.727
어떤 장소인지는 알 수
없지만,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

00:28:13.827 --> 00:28:16.324
그 장소인 건 확실하죠.

00:28:16.424 --> 00:28:19.812
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이따 5번
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.

00:28:19.912 --> 00:28:24.075
아무튼 여기까지 내용을 보니까
화자는 지금 성찰하고 있고요.

00:28:24.175 --> 00:28:26.397
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공간입니다.

00:28:26.497 --> 00:28:30.774
먼 산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
응시하기 위한 장소라고 하는 걸

00:28:30.874 --> 00:28:31.793
알 수 있죠.

00:28:31.893 --> 00:28:32.780
왜?

00:28:32.880 --> 00:28:36.710
먼 산정에 서 있는 마음으로 이런
마음으로 이런 현실들을 본다.

00:28:36.810 --> 00:28:37.749
이렇게 얘기했으니까.

00:28:37.849 --> 00:28:41.920
여기 나의 자식, 이게 현실적이라고
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죠.

00:28:42.020 --> 00:28:49.358
그리고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을
보기로 결심하고 있는데.

00:28:49.458 --> 00:28:52.365
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
결심하고 있는데.

00:28:52.465 --> 00:28:57.104
만약에 또 어느 나의 친구가
와서 나의 꿈을 깨워주고,

00:28:57.204 --> 00:28:59.954
나의 꿈을 일깨워주고
이렇게 볼 수도 있고.

00:29:00.054 --> 00:29:02.641
아니면 너 그런 꿈을 꾸지
마, 이럴 수도 있는 거죠.

00:29:02.741 --> 00:29:03.543
아직까지 알 수 없어요.

00:29:03.643 --> 00:29:07.462
깨워주고 나의 그릇됨을
꾸짖어 주어도 좋다.

00:29:07.562 --> 00:29:09.566
나의 그릇됨, 너 잘못됐어.

00:29:09.666 --> 00:29:10.572
뭐가 잘못된 걸까?

00:29:10.672 --> 00:29:15.873
그릇되다는 것은 생활에 매몰되었다는
것을 꾸짖어도 나는 괜찮다.

00:29:15.973 --> 00:29:19.214
너 그런 꿈 꾸지 마, 그
현실의 꿈을 꾸지 마.

00:29:19.314 --> 00:29:23.952
이렇게 깨워주고 그릇됨을 꾸짖어
주어도 좋다 그랬으니까

00:29:24.052 --> 00:29:26.183
이게 동격일 거 아니에요, 그렇죠?

00:29:26.283 --> 00:29:30.307
그러면 정해진 물건을
보기로 결심하고 있는데

00:29:30.407 --> 00:29:33.169
친구가 와서 이걸
깨워줘도 좋다는 거잖아.

00:29:33.269 --> 00:29:37.671
그러면 정해진 물건만을 보기로 결심한다는
것은 생활이야 아니면 시야?

00:29:37.771 --> 00:29:40.591
생활이겠죠.

00:29:40.691 --> 00:29:43.376
제가 지금 어떻게 시를
보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.

00:29:43.476 --> 00:29:46.928
이미 정해진 물건만을 보기로
결심하고 있는 상황인데

00:29:47.028 --> 00:29:50.317
친구가 와서 너 그러지 마라고
깨워 줘도 좋다고 했으니까

00:29:50.417 --> 00:29:53.134
정해진 물건만을 보기로
결심한다는 것은

00:29:53.234 --> 00:29:56.601
시를 쓰기로 결심했다는 것이
아니라 생활에 매몰되어야지,

00:29:56.701 --> 00:30:00.774
생활에 몰두해야지, 그런
삶의 모습이겠죠, 됐니?

00:30:00.874 --> 00:30:03.423
어차피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
문장 읽기라고 했잖아요.

00:30:03.523 --> 00:30:05.636
결심하고 있는데, 이게 중요하죠.

00:30:05.736 --> 00:30:09.012
결심하고 있는데 친구가 나한테 와서
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괜찮다.

00:30:09.112 --> 00:30:11.540
나의 잘못을 깨우쳐줘도 괜찮다,
이렇게 얘기하는 거야.

00:30:11.640 --> 00:30:19.014
함부로 흘리는 피가 싫어서 이다지 낡아
빠진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리라.

00:30:19.114 --> 00:30:22.521
이다지 낡아 빠진 생활이라고 하는
것도 역시 현실적 삶이겠죠.

00:30:22.621 --> 00:30:24.620
낡아 빠진 생활을
하는 것은 아니리라.

00:30:24.720 --> 00:30:29.255
먼지 낀 잡초 위에
잠자는 구름이여.

00:30:29.355 --> 00:30:30.762
어떤 존재일까?

00:30:30.862 --> 00:30:33.538
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
없는 세상이에요.

00:30:33.638 --> 00:30:38.050
세상에서는 철 늦은 거미같이
존재 없이 살기도 어려운 일.

00:30:38.150 --> 00:30:41.354
즉, 다시 말하면 지금
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

00:30:41.454 --> 00:30:47.119
이런 이런 것들을 하기도
어려운 현실이에요.

00:30:47.219 --> 00:30:53.583
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이
구름이 하는 역할.

00:30:53.683 --> 00:30:55.282
구름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?

00:30:55.382 --> 00:30:58.519
먼지 낀 잡초 위에 잠자는
구름이라고 얘기했고.

00:30:58.619 --> 00:31:01.617
이렇게 낡아 빠진 생활을 하고
있는 것이라고 얘기했고.

00:31:01.717 --> 00:31:03.962
낡아 빠진 생활을 하고
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

00:31:04.062 --> 00:31:07.543
당연히 부정적이니까 생활에
몰두하고 있는 삶이겠죠.

00:31:07.643 --> 00:31:09.967
먼지 낀 잡초 위에
잠자는 구름이여.

00:31:10.067 --> 00:31:12.130
고생도 마음대로 할
수 없는 세상에서.

00:31:12.230 --> 00:31:15.818
이와 같은 세상에서는, 그러니까
생활에만 몰두할 수 없다는 거죠.

00:31:15.918 --> 00:31:18.805
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우치고
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.

00:31:18.905 --> 00:31:21.737
그러면 먼지 낀 잡초
위에 잠자는 구름이야.

00:31:21.837 --> 00:31:23.692
이 구름이라고 하는 건
부정적인 것 같죠?

00:31:23.792 --> 00:31:29.086
다시 말하면 시인이 시를 추구하고자
하는 그런 것을 방해하게,

00:31:29.186 --> 00:31:31.352
그러니까 현실에
안주하게 하는 모습.

00:31:31.452 --> 00:31:36.828
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게
바로 3연의 모습입니다.

00:31:36.928 --> 00:31:42.374
그다음에 [A], [B]
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

00:31:42.474 --> 00:31:44.675
[A]에 대한 내용을
다시 한번 보죠.

00:31:44.775 --> 00:31:50.213
방 두 칸과 마루 한 칸과
말쑥한, 말쑥한이 무슨 뜻입니까?

00:31:50.313 --> 00:31:53.684
말쑥한 부엌과.

00:31:53.784 --> 00:31:57.230

말쑥하다는 것은 깔끔하다
이런 뜻이네요.

00:31:57.330 --> 00:32:00.982
말쑥한 부엌과 애처로운
처를 거느리고.

00:32:01.082 --> 00:32:05.132
그러니까 이게 바로 생활에 몰두할
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잖아.

00:32:05.232 --> 00:32:10.071
외양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
것이 이다지도 쑥스러울 수 있을까.

00:32:10.171 --> 00:32:11.749
반성하고 있죠.

00:32:11.849 --> 00:32:16.791
즉,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서는 막
내적 갈등이 나타나는 거야.

00:32:16.891 --> 00:32:21.077
시를 올바로 써야지, 시를
추구해야지 이런 삶을 살면서도

00:32:21.177 --> 00:32:26.100
방 두 칸, 마루 한 칸, 부엌을
보고, 애처로운 처를 보고 있으면서

00:32:26.200 --> 00:32:28.267
생활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.

00:32:28.367 --> 00:32:31.304
외양만이라도, 겉으로라도
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

00:32:31.404 --> 00:32:34.082
이다지도 쑥스러울 수 있을까.

00:32:34.182 --> 00:32:35.714
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입니다.

00:32:35.814 --> 00:32:39.604
남들처럼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는
것, 이게 바로 소시민들이거든요.

00:32:39.704 --> 00:32:44.250
남들처럼 비판 의식 없이
현실에서 흘러가는 대로

00:32:44.350 --> 00:32:47.095
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
쑥스럽다, 이런 뜻이겠죠.

00:32:47.195 --> 00:32:52.112
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여,
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.

00:32:52.212 --> 00:32:57.804
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

살펴볼 수 없는 시인처럼

00:32:57.904 --> 00:32:59.784
비참한 사람이 또 있을까.

00:32:59.884 --> 00:33:03.032
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본다는
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?

00:33:03.132 --> 00:33:05.388
비참한 사람이 또 있을까
이렇게 얘기했으니까

00:33:05.488 --> 00:33:10.824
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본다는
얘기는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고

00:33:10.924 --> 00:33:17.489
성찰할 수 없는 시인처럼
비참한 사람이 또 있을까.

00:33:17.589 --> 00:33:21.078
자기 자신을 돌아 보니까 자기
내면을 돌아보기도 어렵고

00:33:21.178 --> 00:33:24.685
살펴보기도 어렵고 그런 삶을
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.

00:33:24.785 --> 00:33:30.718
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기도 하고,
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

00:33:30.818 --> 00:33:35.870
집에 앉아서 거리를
그리던 그 어리석음도

00:33:35.970 --> 00:33:38.705
이제는 모두 사라졌나
보다라고 얘기했어요.

00:33:38.805 --> 00:33:43.358
그러면 여기에서 거리하고 집이라고
나왔고, 집과 거리라고 나왔어요.

00:33:43.458 --> 00:33:44.454
그러면 잘 봐요.

00:33:44.554 --> 00:33:46.834
집이라고 하는 것은
바로 아까 위에 나왔던

00:33:46.934 --> 00:33:50.714
방 두 칸, 마루 한 칸, 말쑥한
부엌, 애처로운 처가 있는 곳이

00:33:50.814 --> 00:33:52.008
바로 집이죠.

00:33:52.108 --> 00:33:54.492
그럼 이 집이라고 하는

것은 바로 뭐냐면

00:33:54.592 --> 00:33:57.256
생활의 공간이에요, 생활의 공간.

00:33:57.356 --> 00:34:00.828
그러면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
시와 관련된 공간이겠죠.

00:34:00.928 --> 00:34:05.000
거리에 나와서, 시를 쓴다고
나왔지만 집을 보고 있어.

00:34:05.100 --> 00:34:06.807
애처로운 거죠, 가족들.

00:34:06.907 --> 00:34:10.380
그다음에 집에 앉아서 생활하고
있으면서도 거리를 그리워했어.

00:34:10.480 --> 00:34:12.385
내가 시를 써야 되는데.

00:34:12.485 --> 00:34:14.804
어리석음도 이제는
모두 사라졌나 보다.

00:34:14.904 --> 00:34:16.799
날아간 제비와 같이.

00:34:16.899 --> 00:34:18.771
아까 날아간 제비,
이쪽으로 올까요?

00:34:18.871 --> 00:34:22.520
날아간 제비와 같이, 시를 쓰고자
하는 마음 자세, 반성하는 자세가

00:34:22.620 --> 00:34:24.244
나타나 있는 게 날아간 제비잖아요.

00:34:24.344 --> 00:34:27.808
날아간 제비와 같이, 됐어요?

00:34:27.908 --> 00:34:33.648
그다음 날아간 제비와
같이 자국도 꿈도 없이

00:34:33.748 --> 00:34:38.356
어디로인지 알 수 없으나, 어디로
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.

00:34:38.456 --> 00:34:42.091
어디로든지 가야 할
반역의 정신입니다.

00:34:42.191 --> 00:34:46.024
그러면 이 반역의 정신이라고 하는
건 다시 뭐냐면 시를 써야겠다,

00:34:46.124 --> 00:34:51.426

시에 몰두해야겠다라고 하는 깨우침이
나타나 있는 거죠, 됐어요?

00:34:51.526 --> 00:34:53.239
나는 지금 산정에 있다.

00:34:53.339 --> 00:34:55.378
그럼 산정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.

00:34:55.478 --> 00:35:00.489
시를 반역한 죄로 현실에 몰두한
죄로 이 메마른 산정에서

00:35:00.589 --> 00:35:03.658
오랫동안 꿈도 없이
바라보아야 할 구름.

00:35:03.758 --> 00:35:08.813
구름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돼.

00:35:08.913 --> 00:35:12.460
그리고 그 구름의 파수병인
나라고 표현했네요.

00:35:12.560 --> 00:35:16.100
그러면 결국 이 구름의 파수병이라고
하는 것은 아까 나왔던

00:35:16.200 --> 00:35:19.355
반역의 정신과 연결되는 정신을
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.

00:35:19.455 --> 00:35:20.737
지켜야죠.

00:35:20.837 --> 00:35:23.194
파수병이라고 하는 건
지키는 거니까.

00:35:23.294 --> 00:35:27.044
이 메마른 산정, 지금
현재는 세속에 물들어 있고

00:35:27.144 --> 00:35:30.327
현실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
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인데.

00:35:30.427 --> 00:35:33.716
그렇지만 이제 반역의
정신을 가져야 되고,

00:35:33.816 --> 00:35:36.557
그렇지만 오랫동안 꿈도 없이
바라보아야 할 구름이 있어.

00:35:36.657 --> 00:35:39.110
그 구름을 지켜야 되는
파수병인 나의 모습이니까

00:35:39.210 --> 00:35:46.189
새로운 시 세계를 추구해야겠다,

시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겠다.

00:35:46.289 --> 00:35:48.653
이렇게 결심하고 있는 모습이
나타나 있는 거예요.

00:35:48.753 --> 00:35:53.035
이걸 바탕으로 해서 뒤에 나오는
문제 조금 이따 풀어보겠습니다.

00:35:53.135 --> 00:35:55.318
그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볼까요?

00:35:55.418 --> 00:35:59.530
그다음에 나오는 내용은
(나)를 보니까

00:35:59.630 --> 00:36:05.453
제목이 느낌 극락 같은이라고
하는 제목입니다.

00:36:05.553 --> 00:36:09.993
서연, 동연, 함묘진, 함이정,
조숭인 이렇게 다섯 명의 인물이

00:36:10.093 --> 00:36:12.189
등장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.

00:36:12.289 --> 00:36:14.921
함이정이라고 하는 사람이, 볼게요.

00:36:15.021 --> 00:36:19.085
등장인물을 상상하시면서
보시는 게 좋아요.

00:36:19.185 --> 00:36:20.796
처녀 때 난 생각했었지.

00:36:20.896 --> 00:36:24.287
영리하고 듬직한 아들 하나 있었으면
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어요,

00:36:24.387 --> 00:36:25.778
결혼하기 전에.

00:36:25.878 --> 00:36:30.091
기쁜 일, 슬픈 일 뭐든지 의논할 수
있는 내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

00:36:30.191 --> 00:36:31.220
이렇게 생각한 거야.

00:36:31.320 --> 00:36:33.222
그러다가 너를 느꼈고,
너를 느꼈대.

00:36:33.322 --> 00:36:34.588
너가 누구일까?

00:36:34.688 --> 00:36:36.354
네 느낌과 이야기하길 즐겼다.

00:36:36.454 --> 00:36:38.770
대사가 왜 이렇게
추상적이고 어렵니?

00:36:38.870 --> 00:36:42.170
사람들은 나 혼자 중얼중얼거린다고
괴상하게 보더라.

00:36:42.270 --> 00:36:45.200
사실은 너와 나, 둘이서
함께 말하고 있었는데.

00:36:45.300 --> 00:36:46.162
이게 무슨 얘기야?

00:36:46.262 --> 00:36:49.751
잉태한 것 같아요, 아이를
가진 것 같아요.

00:36:49.851 --> 00:36:51.603
처음부터 다시
이야기해주세요, 어머니.

00:36:51.703 --> 00:36:53.423
여기에서 관계가 나왔네요.

00:36:53.523 --> 00:36:59.271
함이정이라고 하는 인물하고
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

00:36:59.371 --> 00:37:02.806
조숭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
아들인 걸 알 수 있죠.

00:37:02.906 --> 00:37:03.965
다시 얘기해 주세요.

00:37:04.065 --> 00:37:04.895
처음부터?

00:37:04.995 --> 00:37:09.056
네, 제가 태어나기 전
어머니의 처녀 시절부터요.

00:37:09.156 --> 00:37:12.183
그때 두 분 아버지의
관계는 어땠죠?

00:37:12.283 --> 00:37:15.434
두 분, 아버지가 두 분이야?

00:37:15.534 --> 00:37:17.502
두 분 아버지의 관계는 어땠죠?

00:37:17.602 --> 00:37:20.330
뭘까 이게 또, 이런
생각이 들어야죠.

00:37:20.430 --> 00:37:21.845
같게.

00:37:21.945 --> 00:37:23.104
그때는 좋았지.

00:37:23.204 --> 00:37:25.591
두 분 다, 두 명이
누구일까 생각해 보세요.

00:37:25.691 --> 00:37:27.351
우리 집에서 가족처럼 살면서

00:37:27.451 --> 00:37:31.725
우리 아버님한테 불상
제작을 배우는 제자였지.

00:37:31.825 --> 00:37:33.280
그러면 벌써 답이 나왔어요.

00:37:33.380 --> 00:37:35.466
함이정의 아버지가 바로 누구일까?

00:37:35.566 --> 00:37:39.406
함묘진이라고 하는 걸 알
수 있죠, 함 씨니까.

00:37:39.506 --> 00:37:41.426
그러면 제자가 누구예요?

00:37:41.526 --> 00:37:45.803
동연이하고 서연이가 제자라고
하는 걸 알 수 있겠죠.

00:37:45.903 --> 00:37:46.863
이거 딱 이제 지우면
되겠다, 그렇죠?

00:37:46.963 --> 00:37:47.933
보세요.

00:37:48.033 --> 00:37:53.328
함묘진의 제자가 바로
누구냐면 동연과 서연이에요.

00:37:53.428 --> 00:37:56.878
그러면 이 둘 중의 하나가 여기
조숭인의 아버지일 것 같지 않습니까?

00:37:56.978 --> 00:37:59.909
둘 중의 하나가 함이정과 결혼했을
것 같고, 그런 느낌이 들죠?

00:38:00.009 --> 00:38:01.320
갑니다.

00:38:01.420 --> 00:38:05.433
그런데 어느 날 스승인 아버님이
불상 제작장에 가 보니까

00:38:05.533 --> 00:38:07.549
두 제자들이 자리를 비우고 없었어.

00:38:07.649 --> 00:38:10.997
몹시 화가 난 아버님은 집 안으로
들어와서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셨지.

00:38:11.097 --> 00:38:12.626
동연아, 서연아.

00:38:12.726 --> 00:38:13.811
제자들입니다.

00:38:13.911 --> 00:38:16.846
아버님의 목소리가 어찌나
쩌렁쩌렁 울렸는지 천 리 밖까지

00:38:16.946 --> 00:38:18.333
들릴 것 같더라.

00:38:18.433 --> 00:38:20.026
조명 밝게 변화한다.

00:38:20.126 --> 00:38:23.412
조명이 하는 역할은 여러
가지 역할들이 있는데,

00:38:23.512 --> 00:38:25.885
여기에서는 어떤 역할이냐면
밝게 변화하면서

00:38:25.985 --> 00:38:28.195
장면이 전환된다는 걸
수 보여주고 있어요.

00:38:28.295 --> 00:38:29.595
상상해 보세요.

00:38:29.695 --> 00:38:31.047
막이 있잖아요.

00:38:31.147 --> 00:38:34.842
막이 있으면 막이 이렇게 대개
걷혔다 젖혔다, 걷혔다 젖혔다

00:38:34.942 --> 00:38:38.057
이렇게 하기보다는 조명이
어둡고 밝아지고 이러면서

00:38:38.157 --> 00:38:40.018
장면이 바뀐다는 걸 알 수 있겠죠.

00:38:40.118 --> 00:38:44.386
한가운데 펼쳐있던 천막이 접혀지면서
무대 천장 위로 올라간다.

00:38:44.486 --> 00:38:47.426
무대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,
무대가 변화하고 있어요.

00:38:47.526 --> 00:38:48.900
함묘진의 집이에요.

00:38:49.000 --> 00:38:50.016

누구인데?

00:38:50.116 --> 00:38:51.354
함이정의 아버지죠.

00:38:51.454 --> 00:38:53.341
함묘진이 성난 모습으로 등장한다.

00:38:53.441 --> 00:38:57.747
아까 얘기했던 쩌렁쩌렁
울렸는지 천 리 밖까지

00:38:57.847 --> 00:39:00.678
들릴 것 같더라라고 해서
여기는 회상이잖아요.

00:39:00.778 --> 00:39:02.993
그런데 함묘진의 집이 나왔죠?

00:39:03.093 --> 00:39:06.103
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회상 장면으로
넘어갔다는 걸 알 수 있죠.

00:39:06.203 --> 00:39:06.980
뭘 통해?

00:39:07.080 --> 00:39:10.486
조명과 무대 장치의 변화를 통해서
과거 사건으로 간다는 걸

00:39:10.586 --> 00:39:11.996
알 수 있겠네.

00:39:12.096 --> 00:39:14.687
함이정과 조숭인은 서연의 관,

00:39:14.787 --> 00:39:19.287
서연이 지금 죽었다는 걸 알
수 있겠네요, 그렇죠?

00:39:19.387 --> 00:39:24.235
아까 등장했던 함이정과
조숭인이라고 하는 이 등장인물이

00:39:24.335 --> 00:39:26.325
무대 장치를 옮기고 있는 거예요.

00:39:26.425 --> 00:39:29.141
이렇게 얘기하다가 다음
장면 밝게 변하면서

00:39:29.241 --> 00:39:32.592
함묘진의 집으로 바뀌면서 후다닥
들어가면서 관도 옮기고 들어가고,

00:39:32.692 --> 00:39:34.295
촛대도 옮기고 들어가는 거예요.

00:39:34.395 --> 00:39:36.786
촛대, 향로 등을 무대
밖으로 갖고 나간다.

00:39:36.886 --> 00:39:38.168
이해되시나요?

00:39:38.268 --> 00:39:39.701
그러면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?

00:39:39.801 --> 00:39:42.746
과거 상황이 진행된다는
걸 알 수 있겠죠.

00:39:42.846 --> 00:39:46.363
함묘진이 동연아,
서연아 어디 있느냐?

00:39:46.463 --> 00:39:49.393
함이정이 무대 밖에서
여긴 없어요, 아버지.

00:39:49.493 --> 00:39:54.537
함이정이라고 하는 인물은 첫
장면에 나왔던 함이정보다

00:39:54.637 --> 00:39:56.110
훨씬 어린 인물이겠죠?

00:39:56.210 --> 00:39:57.809
과거 회상했던 인물이니까.

00:39:57.909 --> 00:40:00.341
아직 결혼 안 했던
처녀 때의 모습이겠죠.

00:40:00.441 --> 00:40:03.340
여기는 없어요, 아버지라고
대답을 하고 있는 것뿐이니까

00:40:03.440 --> 00:40:05.631
과거의 함이정이겠죠.

00:40:05.731 --> 00:40:07.923
여기 집 안에도 없다?

00:40:08.023 --> 00:40:10.598
무대 밖에서 내가
나가서 찾아 올까요?

00:40:10.698 --> 00:40:11.932
넌 가만히 있거라.

00:40:12.032 --> 00:40:13.465
왜 또 이렇게 설정했을까?

00:40:13.565 --> 00:40:17.039
아까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좀 늙은
모습으로 등장했을 거 아니야.

00:40:17.139 --> 00:40:20.205
그런데 나가자마자 분장 지우고
이렇게 젊은 모습으로

00:40:20.305 --> 00:40:21.312
나타날 수가 없잖아요.

00:40:21.412 --> 00:40:23.995
그러니까 무대 밖에서 계속 이렇게
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.

00:40:24.095 --> 00:40:25.247
넌 가만히 있거라.

00:40:25.347 --> 00:40:27.615
다시 외쳐 부른다,
동연아, 서연아.

00:40:27.715 --> 00:40:33.912
상복을 벗고, 아까 그러니까 첫
장면에서 함이정과 조숭인이

00:40:34.012 --> 00:40:37.165
서로 얘기하고 있을 때
누군가의 장례식장이었나 봐요.

00:40:37.265 --> 00:40:38.489
누구의 장례식장이었어?

00:40:38.589 --> 00:40:40.553
서연이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어.

00:40:40.653 --> 00:40:45.812
그 장례식장에서 있다가
퇴장하고 함묘진이 등장하고

00:40:45.912 --> 00:40:48.364
상복을 벗고 밝은색
옷을 입은 함이정과.

00:40:48.464 --> 00:40:49.773
왜 밝은색 옷이에요?

00:40:49.873 --> 00:40:51.488
과거로 넘어갔으니까.

00:40:51.588 --> 00:40:54.520
조숭인, 무대 안으로 나온다.

00:40:54.620 --> 00:40:59.372
조숭인이 왜 여기에서
나올까 고민해야죠.

00:40:59.472 --> 00:41:01.783
조숭인이 왜 나올까?

00:41:01.883 --> 00:41:02.999
고민해 봐야죠.

00:41:03.099 --> 00:41:03.884
잘 보세요.

00:41:03.984 --> 00:41:05.508
조숭인이 무대 안으로 나온다.

00:41:05.608 --> 00:41:07.995
과거 회상 장면에 조승인이
원래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.

00:41:08.095 --> 00:41:10.263
그런데 왜 나올까 고민해 봐야죠.

00:41:10.363 --> 00:41:12.389
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?

00:41:12.489 --> 00:41:15.876
귀머거리도 들을 정도야, 그렇지?

00:41:15.976 --> 00:41:18.914
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
조승인이라고 하는 인물은

00:41:19.014 --> 00:41:23.298
다른 등장인물 사이에서는 아마 느끼지
못할 거예요, 다른 등장인물들은.

00:41:23.398 --> 00:41:24.576
동연아, 서연아.

00:41:24.676 --> 00:41:26.571
동연과 서연 등장한다.

00:41:26.671 --> 00:41:30.101
그들은 당황한 모습으로
함묘진 앞에 선다.

00:41:30.201 --> 00:41:31.727
동연, 서연, 부르셨습니까?

00:41:31.827 --> 00:41:33.531
작업장에 너희가 없더구나.

00:41:33.631 --> 00:41:34.854
죄송합니다, 잠깐 밖에
나가 있었습니다.

00:41:34.954 --> 00:41:35.648
밖에는 왜?

00:41:35.748 --> 00:41:36.934
말다툼 때문에, 서로
의견이 달라서요.

00:41:37.034 --> 00:41:37.771
말다툼?

00:41:37.871 --> 00:41:38.770
네.

00:41:38.870 --> 00:41:41.376
함묘진, 서연아 네가
다툰 이유를 말해 봐라.

00:41:41.476 --> 00:41:42.381
송구스럽습니다.

00:41:42.481 --> 00:41:45.657
둘이 이제 갈등 관계가 있었나
봐요, 동연과 서연이.

00:41:45.757 --> 00:41:47.710
너희는 생각도 행동도 똑같았다.

00:41:47.810 --> 00:41:51.692
그런 너희가 말다툼을 하다니,
도대체 다르다면 뭐가 달랐더냐?

00:41:51.792 --> 00:41:54.028
동연은 부처의 모습을
만들면 그 모습 속에

00:41:54.128 --> 00:41:55.619
부처의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.

00:41:55.719 --> 00:41:56.721
그런데 너는?

00:41:56.821 --> 00:41:58.350
모습이 있으면 마음이 있다.

00:41:58.450 --> 00:42:02.138
그런데 저는 부처의 모습을 만들어도
부처의 마음이 그 안에 없다면

00:42:02.238 --> 00:42:04.534
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했습니다.

00:42:04.634 --> 00:42:05.909
그러면 잘 보세요.

00:42:06.009 --> 00:42:11.445
이 서연이라고 하는 인물은
뭐가 중요한 인물이야?

00:42:11.545 --> 00:42:16.623
마음이 중요한 인물이고, 동연이라고
하는 인물은 뭐가 중요한 인물이야?

00:42:16.723 --> 00:42:18.442
외향을 중시하는 인물이야.

00:42:18.542 --> 00:42:21.903
겉모습만 잘 만들어도 그
안에 부처의 마음이 깃든다.

00:42:22.003 --> 00:42:24.244
그게 서로 갈등, 대립이
나타나고 있는 거죠.

00:42:24.344 --> 00:42:26.771
사부님, 서연을 꾸짖어 주십시오.

00:42:26.871 --> 00:42:28.759
서연은 쓸데없는 주장으로
저를 괴롭힙니다.

00:42:28.859 --> 00:42:29.958

중략됐죠.

00:42:30.058 --> 00:42:34.648
아까 그러면 조승인이 나와서
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?

00:42:34.748 --> 00:42:38.430
거기에서 등장인물로 나오지만,
함묘진이나 동연, 서연은

00:42:38.530 --> 00:42:40.174
이 조승인을 못 보는 거겠죠.

00:42:40.274 --> 00:42:41.755
서연과 함이정 일어선다.

00:42:41.855 --> 00:42:46.970
서연과 함이정이 일어섭니다,
과거죠, 여태까지.

00:42:47.070 --> 00:42:49.341
돌부처를 만들면서 길을 따라간다.

00:42:49.441 --> 00:42:51.716
돌부처를 만들고 있네요, 지울게요.

00:42:51.816 --> 00:42:54.246
물 흐르는 소리가 점점
가깝게 들려온다.

00:42:54.346 --> 00:42:56.853
조명, 개울물의 흐름을 나타낸다.

00:42:56.953 --> 00:42:59.489
조명을 통해서 개울물의
흐름을 나타냅니다.

00:42:59.589 --> 00:43:01.742
개울물이에요, 서연 오빠.

00:43:01.842 --> 00:43:03.354
여기에서 길은 끊겼어요.

00:43:03.454 --> 00:43:06.290
개울가로 다가가서 두 손으로
물을 떠서 마시며.

00:43:06.390 --> 00:43:08.572
서연이가 너도 마시렴,
목마를 텐데.

00:43:08.672 --> 00:43:10.285
함이정이 뭐라고 하느냐.

00:43:10.385 --> 00:43:12.349
서연 곁으로 가서
개울물을 바라본다.

00:43:12.449 --> 00:43:14.043
물 위에 비쳐 보여요,
우리 얼굴이.

00:43:14.143 --> 00:43:16.551
얼굴 뒤에는 구름이
구름 뒤에는 하늘이.

00:43:16.651 --> 00:43:17.664
물을 떠서 마신다.

00:43:17.764 --> 00:43:20.528
물이 맑고 시원해요라고
얘기했습니다.

00:43:20.628 --> 00:43:24.786
서연, 장난스럽게 개울물을 마치
눈덩이처럼 뭉치는 동작을 한다.

00:43:24.886 --> 00:43:28.030
뭉치는 동작, 물로 이렇게
사람 만드는 것처럼.

00:43:28.130 --> 00:43:30.814
서연이라는 인물은 마음을
중시하는 인물이었잖아요.

00:43:30.914 --> 00:43:32.047
오빠, 뭘 하는 거죠?

00:43:32.147 --> 00:43:33.670
물 부처를 만든다.

00:43:33.770 --> 00:43:34.602
물 부처요?

00:43:34.702 --> 00:43:37.526
돌로도 부처님을 만드는데,
물이라고 안 될 건 없지.

00:43:37.626 --> 00:43:42.499
서연, 흐르는 물속으로 들어가
물로 만든 부처를 세워 놓는다.

00:43:42.599 --> 00:43:45.422
부처의 느낌은 남고
형태는 사라진다.

00:43:45.522 --> 00:43:47.071
오빠, 이쪽으로 나와요.

00:43:47.171 --> 00:43:49.829
개울물을 건너가면서
난 저쪽으로 간다.

00:43:49.929 --> 00:43:50.781
헤어지는 건가요?

00:43:50.881 --> 00:43:51.520
서연 오빠.

00:43:51.620 --> 00:43:52.604
넌 나중에 건너와.

00:43:52.704 --> 00:43:53.488
손을 흔든다.

00:43:53.588 --> 00:43:54.771
그래요, 오빠 먼저 가요.

00:43:54.871 --> 00:43:57.286
나는 나중에라고 하면서
헤어진 것 같죠?

00:43:57.386 --> 00:43:59.090
서연과 함이정입니다.

00:43:59.190 --> 00:44:01.556
잠시 개울물 양쪽에서 서로를
바라보고 있습니다.

00:44:01.656 --> 00:44:05.169
조승인이 피아노 앞에 앉아
건반을 두드리며 작곡 중이다.

00:44:05.269 --> 00:44:06.629
별걸 다하죠?

00:44:06.729 --> 00:44:13.774
조승인은 지금 아직까지
함이정과 서연이 등장하는

00:44:13.874 --> 00:44:16.798
이때는 세상에 존재하지
않았던 인물이죠?

00:44:16.898 --> 00:44:19.502
피아노에 앉아 건반을
두드리며 작곡 중입니다.

00:44:19.602 --> 00:44:22.495
개울물 건너쪽,
눈부시도록 밝아진다.

00:44:22.595 --> 00:44:26.278
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
함묘진이, 아버지가 다급하게

00:44:26.378 --> 00:44:29.466
휠체어 바퀴를 굴리면서 들어온다.

00:44:29.566 --> 00:44:32.112
그는 피아노 옆을 지나
개울물을 건너간다.

00:44:32.212 --> 00:44:34.281
코러스, 돌부처들.

00:44:34.381 --> 00:44:38.602
돌부처들이 코러스로 막 노래하고
있는 그런 무대 장치입니다.

00:44:38.702 --> 00:44:42.392
개울물을 건너가는 서연을
배웅하듯이 따라가듯이 마중하듯이

00:44:42.492 --> 00:44:45.111
서연과 함께 어우러져
춤을 추며 간다, 누가?

00:44:45.211 --> 00:44:47.718
코러스들이 함께 가고
있는 것 같죠.

00:44:47.818 --> 00:44:50.488
개울물 저쪽, 눈부시도록
빛이 밝다.

00:44:50.588 --> 00:44:55.083
함묘진이 다급하게 휠체어 바퀴를
굴리며 들어오고 있습니다.

00:44:55.183 --> 00:44:57.393
할아버지, 어딜 그렇게
급하게 가세요?

00:44:57.493 --> 00:45:00.118
극락문이 열렸다, 극락문이 열렸어.

00:45:00.218 --> 00:45:01.496
이게 무슨 얘기일까요?

00:45:01.596 --> 00:45:03.684
이 대사가 무슨 뜻일까요?

00:45:03.784 --> 00:45:06.275
이 함묘진이라고 하는
인물은 그 전에

00:45:06.375 --> 00:45:08.307
이미 죽은 인물인 것
같지 않습니까?

00:45:08.407 --> 00:45:11.371
그러니까 조승인과 대화를
할 수 있는 거겠죠.

00:45:11.471 --> 00:45:15.034
아니면 조승인이 그냥 독백식으로,
방백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

00:45:15.134 --> 00:45:17.650
함묘진도 역시 독백식으로
극락문이 열렸다.

00:45:17.750 --> 00:45:20.165
둘의 서로 대화라고 보기
어려울 수도 있겠네요.

00:45:20.265 --> 00:45:21.974
함묘진, 휠체어에서 일어난다.

00:45:22.074 --> 00:45:24.585
그는 서연의 뒤를 따라
빛 안으로 들어간다.

00:45:24.685 --> 00:45:26.242
무대 조명 변화하고요.

00:45:26.342 --> 00:45:27.637
동연 등장한다.

00:45:27.737 --> 00:45:30.883
그는 조숭인에게 다가와서
전보 용지를 내놓는다.

00:45:30.983 --> 00:45:34.690
그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여기에서
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.

00:45:34.790 --> 00:45:38.658
여기에서 보니까 극락문이
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

00:45:38.758 --> 00:45:43.602
서연이라고 하는 인물이
여기에서 주인공처럼 나타나죠.

00:45:43.702 --> 00:45:46.171
서연과 동연이 서로
대립하고 있는데,

00:45:46.271 --> 00:45:49.407
작가는 서연을 더 긍정적으로
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

00:45:49.507 --> 00:45:52.808
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
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

00:45:52.908 --> 00:45:55.267
문제를 한번 가볼게요.

00:45:55.367 --> 00:45:57.014
지문부터 볼까요, 한번.

00:45:57.114 --> 00:45:58.549
지문 소화제라고 해서.

00:45:58.649 --> 00:46:05.211
(가)에서는 대립적인 성격을 가진
두 공간인 집과 거리 사이에서

00:46:05.311 --> 00:46:07.442
갈등했던 자신의 모습을
돌아보고 있다.

00:46:07.542 --> 00:46:11.494
(가)의 화자는 자신의 생활을
성찰하며 스스로를 긍정적으로

00:46:11.594 --> 00:46:12.601
바라보고 있나요?

00:46:12.701 --> 00:46:14.994
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
있지 않죠, X입니다.

00:46:15.094 --> 00:46:17.063
부끄럽고 반성하고 있는 존재니까요.

00:46:17.163 --> 00:46:20.802
(나)의 등장인물 중에서
동연은 부처의 뭘 중시한다?

00:46:20.902 --> 00:46:23.078
외향을 중시한다,
형상을 중시하고요.

00:46:23.178 --> 00:46:27.266
형상을 중시하고 서연은 부처의
마음을 중시하는 인물이다.

00:46:27.366 --> 00:46:32.285
그러니까 그 형상을 만들 수
없는 물부처를 만든다,

00:46:32.385 --> 00:46:34.051
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.

00:46:34.151 --> 00:46:36.115
형상 자체가 중요한
건 아니라는 거죠.

00:46:36.215 --> 00:46:38.498
내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.

00:46:38.598 --> 00:46:42.242
(가)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
않은 것을 한번 골라 보래요.

00:46:42.342 --> 00:46:44.176
(가)를 이해한 내용으로
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46:44.276 --> 00:46:48.528
화자는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
주위의 물건까지도 살펴보면서

00:46:48.628 --> 00:46:50.938
자기 생활을 성찰하고
있다 그랬습니다.

00:46:51.038 --> 00:46:53.119
(가) 작품을 보면서 가볼게요.

00:46:53.219 --> 00:46:57.912
앞에 보니까 어디 나왔냐면 2연을
보니까 2연에서 주위의 물건까지

00:46:58.012 --> 00:47:01.009
살펴보면서 자기 생활을
성찰하고 있다, 맞죠.

00:47:01.109 --> 00:47:05.214
그다음 2번을 보면 화자는
나의 친구가 방문한 뒤에야

00:47:05.314 --> 00:47:08.893
비로소 자신의 삶이 그릇됨을
자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.

00:47:08.993 --> 00:47:14.962
여기에서는 뭐냐면 만약에 또 어느
친구가 와서 나의 꿈을 깨워주고

00:47:15.062 --> 00:47:18.589
나의 그릇됨을 꾸짖어도 좋다라고
되어 있잖아요, 그렇죠?

00:47:18.689 --> 00:47:23.546
그러면 여기에서 뭐냐면 나의 친구가
방문했다, 방문하지 않았다

00:47:23.646 --> 00:47:24.628
이건 알 수 없죠.

00:47:24.728 --> 00:47:25.638
왜?

00:47:25.738 --> 00:47:30.831
앞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
만약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

00:47:30.931 --> 00:47:34.564
만약에 그렇게 한다
하더라도 좋다라고 했으니까

00:47:34.664 --> 00:47:37.632
방문한 뒤에야라고 얘기할
수는 없는 거죠.

00:47:37.732 --> 00:47:43.962
그래서 내용 일치 문제에서 정답,
2번이 정답인 거예요, 됐니?

00:47:44.062 --> 00:47:49.013
그다음에 나의 친구 방문이 내가
그릇되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

00:47:49.113 --> 00:47:50.997
계기가 되는 것도
아니라는 얘기입니다.

00:47:51.097 --> 00:47:55.519
화자는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
없는 세상에서 존재 없이

00:47:55.619 --> 00:47:57.422
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
느끼고 있다.

00:47:57.522 --> 00:47:59.377
이거는 뭐 직접 나온 거니까.

00:47:59.477 --> 00:48:05.663
어디 나왔냐면 하나, 둘,
셋, 3연에 나왔네요.

00:48:05.763 --> 00:48:07.850
고생도 마음대로 할
수 없는 세상에서는

00:48:07.950 --> 00:48:11.040
존재 없이 살기도 어려운
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맞죠.

00:48:11.140 --> 00:48:12.404
4번 볼까요?

00:48:12.504 --> 00:48:15.703
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
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인식한다.

00:48:15.803 --> 00:48:17.206
이건 그대로 보면 되겠네.

00:48:17.306 --> 00:48:21.578
어디 나왔냐면 하나, 둘, 셋,
넷, 다섯, 여섯, 6연에 보니까

00:48:21.678 --> 00:48:26.791
두 번째 줄에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
보고 살펴볼 수 없는 시인처럼

00:48:26.891 --> 00:48:28.625
비참한 사람이 또 있을까라고
해서 자기 자신을 비참하다고

00:48:28.725 --> 00:48:30.244
얘기하고 있는 거죠.

00:48:30.344 --> 00:48:32.622
화자는 시와는 반역된
생활을 죄로 받아들이면서

00:48:32.722 --> 00:48:35.503
자신을 구름의 파수병으로
규정하고 있다.

00:48:35.603 --> 00:48:37.731
마지막에 밑에서
두 번째, 세 번째 줄.

00:48:37.831 --> 00:48:41.016
시를 번역한 죄로 구름의
파수병인 나라고 얘기했으니까

00:48:41.116 --> 00:48:42.893
이것도 적절한 감상이겠죠.

00:48:42.993 --> 00:48:44.558
내용 일치 문제입니다.

00:48:44.658 --> 00:48:48.496
말 그대로 그 부분, 부분 구절에
대한 내용 일치 문제라고

00:48:48.596 --> 00:48:50.180
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48:50.280 --> 00:48:52.919
기본적으로 화자의 태도를
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죠.

00:48:53.019 --> 00:48:57.455
기본적으로 화자의 태도를 파악하고
그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

00:48:57.555 --> 00:49:00.251
그 문맥의 의미가 어떤
건지를 파악하시면

00:49:00.351 --> 00:49:02.488
쉽게 문제를 풀 수
있을 것 같습니다.

00:49:02.588 --> 00:49:04.062
다음 내용을 볼게요.

00:49:04.162 --> 00:49:04.963
2번 문제.

00:49:05.063 --> 00:49:05.824
아까 봤었죠?

00:49:05.924 --> 00:49:08.859
생활에 몰두하는 모습, 그다음에
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

00:49:08.959 --> 00:49:10.061
화자의 모습입니다.

00:49:10.161 --> 00:49:11.386
적절하지 않은 건데.

00:49:11.486 --> 00:49:13.066
첫 번째 1번은 아까
봤었던 거고요.

00:49:13.166 --> 00:49:16.367
나는 이미 정해진 ~ 결심하고.

00:49:16.467 --> 00:49:20.207
나는 이미 정해진 물건을 보기로
결심하고 있는데라고 했는데.

00:49:20.307 --> 00:49:23.591
정해진 물건을 보고 있다는 얘기는
어떤 삶에 가까운 거냐면

00:49:23.691 --> 00:49:25.743
㉠의 삶에 가까운 거죠.

00:49:25.843 --> 00:49:28.819
㉠과 ㉡의 갈등을 해소한
화자의 심정, 아닙니다.

00:49:28.919 --> 00:49:32.579
아직까지는 갈등 중이고, 아직까지
무엇을 결정하지는 않았죠.

00:49:32.679 --> 00:49:35.649
그러니까 갈등 해소하고
있다는 건 알 수 없어요.

00:49:35.749 --> 00:49:40.098
마지막 부분에서 파수병인 나,
그 부분에서 얘가 이제

00:49:40.198 --> 00:49:42.564
시를 새롭게 써야겠다, 이렇게
결심하고 있는 건 맞죠.

00:49:42.664 --> 00:49:46.549
그때는 맞겠지만, 나는 이미 정해진
것을 보기로만 결심했다고 하면

00:49:46.649 --> 00:49:49.186
갈등이 해소된 부분이 아닙니다.

00:49:49.286 --> 00:49:52.766
화자가 자신을 어디로이든
가야 할 존재로 여기는 것은

00:49:52.866 --> 00:49:55.919
㉠에서 ㉡으로 나아가려는
의지에서 비롯됐다.

00:49:56.019 --> 00:49:58.330
㉠에서 ㉡으로 바뀌려고
해야 되는 거니까 맞죠.

00:49:58.430 --> 00:50:01.142
메마른 산정에서
지향하고 있는 거죠.

00:50:01.242 --> 00:50:03.273
마지막에 메마른 산정에
있다고 했으니까.

00:50:03.373 --> 00:50:06.208
맨 처음에 나왔던 먼
산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.

00:50:06.308 --> 00:50:08.792
맨 마지막에 메마른 산정이라고
하는 것도 있으니까

00:50:08.892 --> 00:50:10.152
비교하면서 보세요.

00:50:10.252 --> 00:50:12.203
반역의 정신은 ㉡이
추구하고자 한다.

00:50:12.303 --> 00:50:13.161
적절하죠.

00:50:13.261 --> 00:50:14.757
시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니까.

00:50:14.857 --> 00:50:17.963
구름의 파수병은 두 자아의 갈등
속에서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

00:50:18.063 --> 00:50:19.424
화자의 의식이 반영된 거다.

00:50:19.524 --> 00:50:21.307
결국은 극복하려는 의지가
나타나 있는 거죠.

00:50:21.407 --> 00:50:24.458
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

00:50:24.558 --> 00:50:27.436
[A]와 [B]에 대한
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00:50:27.536 --> 00:50:28.813
다음 문제 볼게요.

00:50:28.913 --> 00:50:30.200
[A]와 [B]에 대한 설명.

00:50:30.300 --> 00:50:31.475
[A] 부분 한번 볼까요?

00:50:31.575 --> 00:50:35.337
방 두 칸과 마루 한 칸과
말쑥한 부엌과 애처로운 처.

00:50:35.437 --> 00:50:38.021
대상을 나열함으로써,
1번이 정답이네요.

00:50:38.121 --> 00:50:42.187
나열함으로써 화자의 정서가
촉발된 상황을 말하고 있다.

00:50:42.287 --> 00:50:46.256
즉, 방 두 칸과 마루 한 칸과
말쑥한 부엌과 애처로운 처 때문에

00:50:46.356 --> 00:50:50.171
생활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
살아왔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

00:50:50.271 --> 00:50:53.268
너무나 안타깝고 반성하고
있는 내용이거든요.

00:50:53.368 --> 00:50:54.563
적절하죠.

00:50:54.663 --> 00:50:57.345
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
전부 다 틀렸고요.

00:50:57.445 --> 00:50:59.014
정답 1번이 정답입니다.

00:50:59.114 --> 00:51:00.186
4번 볼까요?

00:51:00.286 --> 00:51:03.851
4번 보시면 무대 상연을 전제로
하는 희곡의 특성을 고려할 때

00:51:03.951 --> 00:51:08.523
ⓐ~ⓔ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
것을 골라라라고 얘기했는데.

00:51:08.623 --> 00:51:10.290
ⓐ 부분 볼까요?

00:51:10.390 --> 00:51:13.703
ⓐ 부분은 한가운데 펼쳐져
있던 천막이 접혀지면서

00:51:13.803 --> 00:51:15.391
무대 천장으로 올라갑니다.

00:51:15.491 --> 00:51:18.783
천장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좌우로
분리되는 게 아니겠죠.

00:51:18.883 --> 00:51:20.299
새로운 공간이 나타납니다.

00:51:20.399 --> 00:51:24.421
그다음에 ⓑ를 보면 상복을 벗고
밝은색 옷을 입고 나타난다 그랬어.

00:51:24.521 --> 00:51:26.164
의상 교체로 장면 전환, 적절하죠.

00:51:26.264 --> 00:51:29.177
과거로 돌아왔다는 걸
알 수 있습니다.

00:51:29.277 --> 00:51:31.090
그다음에 ⓒ를 볼까요?

00:51:31.190 --> 00:51:35.285
ⓒ를 보시면 조명, 개울물의
흐름이니까 갈등 해소와 상관없죠.

00:51:35.385 --> 00:51:36.656
ⓓ를 볼까요?

00:51:36.756 --> 00:51:37.861
ⓓ는 어디 있니?

00:51:37.961 --> 00:51:40.353
조승인이 건반을 두드리며
작곡 중이라고 했는데.

00:51:40.453 --> 00:51:43.434
무대 밖에서가 아니죠, 무대
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.

00:51:43.534 --> 00:51:46.563

그다음에 함묘진이 다급하게 휠체어
바퀴를 굴리며 들어온다.

00:51:46.663 --> 00:51:51.419
다급하게라고 했으니까 긴장감이
완화되는 게 아니라 고조되는 거겠죠.

00:51:51.519 --> 00:51:53.216
5번 봅니다.

00:51:53.316 --> 00:51:55.691
(가)와 (나)의 공간에
대한 설명인데요.

00:51:55.791 --> 00:51:59.014
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
골라 봐라라고 얘기했습니다.

00:51:59.114 --> 00:52:02.329
(가)의 집과 거리는 삶의
방향을 정하지 못했던 화자에게

00:52:02.429 --> 00:52:03.830
대비적으로 인식된다.

00:52:03.930 --> 00:52:07.665
집에서 거리를 그리워하고 거리에
있으면서 집을 생각한다.

00:52:07.765 --> 00:52:10.147
정답 1번은 적절하죠.

00:52:10.247 --> 00:52:11.883
대비적인 공간으로
설정되어 있습니다.

00:52:11.983 --> 00:52:17.972
생활 공간과 대비되는 먼 산정은
화자가 자신의 현실을 응시하기 위해

00:52:18.072 --> 00:52:19.774
상정한 공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.

00:52:19.874 --> 00:52:23.450
이 먼 산정이라고 하는
것이 좀 애매합니다.

00:52:23.550 --> 00:52:27.980
먼 산정에 서 있는 그 마음으로
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 그랬으니까

00:52:28.080 --> 00:52:32.207
생활 공간과 대비되는지 대비되지 않는지
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?

00:52:32.307 --> 00:52:38.544
먼 산정에서 그 마음으로
자식과 아내와 주위에 있는

00:52:38.644 --> 00:52:42.023
잡스러운 물건을 본다고 했으니까

이 면 산정이라고 하는 것이

00:52:42.123 --> 00:52:44.314
대비된다, 이거는 조금
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.

00:52:44.414 --> 00:52:46.072
다른 선택지를 먼저 볼게요.

00:52:46.172 --> 00:52:52.705
(나)에서 작업장은 불상을 제작하는
과정에서 동연과 서연의 예술관이

00:52:52.805 --> 00:52:54.941
부딪히는 공간이다,
맞죠 이건 당연히.

00:52:55.041 --> 00:52:56.015
4번을 볼까요?

00:52:56.115 --> 00:53:00.621
(나)의 돌부처를 만들며 가는
길은, 돌부처가 어디 있습니까?

00:53:00.721 --> 00:53:06.983
돌부처를 만들며 가는 길은,
돌부처가 어디 있죠?

00:53:07.083 --> 00:53:10.487
마지막 부분에 코러스
나오고 그 부분이네요.

00:53:10.587 --> 00:53:13.653
돌부처를 만들며 가는 길은
하늘과 대비되는 곳으로

00:53:13.753 --> 00:53:17.218
서연의 예술관이 조승인에게
전수되는 공간이라고 얘기했는데.

00:53:17.318 --> 00:53:19.543
여러분, 4번이
확실하게 틀렸습니다.

00:53:19.643 --> 00:53:23.243
뭐냐 하면 (나)의 돌부처를
만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

00:53:23.343 --> 00:53:28.182
돌부처라고 하는 것은 서연의 그
마음, 서연이라고 하는 인물이

00:53:28.282 --> 00:53:32.910
마음이 중시되어야 된다, 부처의
마음이 중시된다고 얘기했으니까

00:53:33.010 --> 00:53:37.957
그거는 뭐 긍정적인 의미라고 본다면
하늘과 대비되는 곳이라고 했는데.

00:53:38.057 --> 00:53:41.078

하늘은 어디 나왔냐면요.

00:53:41.178 --> 00:53:44.223
하늘은 눈이 부시도록 밝다,
이렇게 얘기했으니까

00:53:44.323 --> 00:53:46.774
하늘도 역시 마찬가지로
긍정적인 공간이니까

00:53:46.874 --> 00:53:49.592
대비되는 공간이다,
이게 확실하게 틀렸죠.

00:53:49.692 --> 00:53:52.452
그래서 정답이 4번이 정답입니다.

00:53:52.552 --> 00:53:57.180
돌부처 만들며 가는 길은
예술관이 조숭인에게 전수된다.

00:53:57.280 --> 00:54:02.060
조숭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서연의
예술을 전승했다고 얘기해도

00:54:02.160 --> 00:54:03.111
어렵잖아요.

00:54:03.211 --> 00:54:05.052
그래서 확실하게 틀린
게 바로 4번이겠죠.

00:54:05.152 --> 00:54:07.442
(나)의 개울물 저쪽은
이쪽과 대비돼요.

00:54:07.542 --> 00:54:09.345
이쪽, 저쪽이 달라지는 곳이니까.

00:54:09.445 --> 00:54:12.215
예술의 본질을 추구하던 서연이
도달하게 되는 공간입니다.

00:54:12.315 --> 00:54:14.688
서로 갈라지면서 밝게
빛이 나는 공간이니까

00:54:14.788 --> 00:54:20.037
서연의 인식이, 서연이 결국
지향하는 이상적인 공간이

00:54:20.137 --> 00:54:23.387
바로 개울물 저쪽과 이쪽으로
나뉘어지는 공간입니다.

00:54:23.487 --> 00:54:26.547
그러면 2번 선택지가 아까
애매하다고 얘기했잖아요.

00:54:26.647 --> 00:54:30.072
선생님이 그냥 문제 풀 듯이 보면

생활 공간과 대비되는 먼 산정은,

00:54:30.172 --> 00:54:32.207
왜 이건 이렇게 보는 거예요.

00:54:32.307 --> 00:54:35.902
보시면 먼 산정에 서 있는
마음으로, 그 부분을 보세요.

00:54:36.002 --> 00:54:39.693
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주위
잡스러운 물건을 바라본다는 게

00:54:39.793 --> 00:54:41.150
두 가지로 다 해석될 수 있는데.

00:54:41.250 --> 00:54:42.676
잘 보세요, 여기에서 중요한 거.

00:54:42.776 --> 00:54:45.896
이렇게 해석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
이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.

00:54:45.996 --> 00:54:50.968
그러니까 먼 산정에 있는 마음으로
멀리 있으면서 그 현실,

00:54:51.068 --> 00:54:52.591
내가 왜 저렇게 살고 있지?

00:54:52.691 --> 00:54:54.042
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.

00:54:54.142 --> 00:54:55.635
그러면 이거 적절하게
볼 수 있는 거예요.

00:54:55.735 --> 00:54:58.919
확실하게 아닌 거 답을 찾아야
되는 거잖아, 그렇지?

00:54:59.019 --> 00:55:00.863
그런데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죠.

00:55:00.963 --> 00:55:04.747
먼 산정에 있는 그 마음으로
잡스러운 물건을 본다는 거니까

00:55:04.847 --> 00:55:08.944
먼 산정에 서 있는 마음이
생활을 추구하는 마음이다

00:55:09.044 --> 00:55:10.574
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
같아요, 그 문장만으로 본다면.

00:55:10.674 --> 00:55:15.772
그러나 여기에서는 대비되는 공간으로
먼 산정이 설정됐다고 해도

00:55:15.872 --> 00:55:17.956

논리적으로 아무 모순이 없죠?

00:55:18.056 --> 00:55:19.598
그러면 이건 적절한 거로 봅니다.

00:55:19.698 --> 00:55:21.301
이게 국어 영역이라서 좀 어려워요.

00:55:21.401 --> 00:55:23.113
이것도 오답이 상당히 많았거든요.

00:55:23.213 --> 00:55:27.003
그래서 정답은 4번이
정답이 되겠습니다.

00:55:27.103 --> 00:55:30.648
그다음에 마지막 6번
문제를 한번 볼까요?

00:55:30.748 --> 00:55:34.556
(나)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
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

00:55:34.656 --> 00:55:35.729
얘기했는데.

00:55:35.829 --> 00:55:38.369
그런데 어느 날, 스승인
아버님이 ~ 두 제자들이

00:55:38.469 --> 00:55:41.341
자리를 비우고 없었어라는
대사에서 극 중 사건을

00:55:41.441 --> 00:55:44.426
현재에서 과거로 전환시키는
기능을 하고 있다.

00:55:44.526 --> 00:55:47.070
함이정의 대사를 통해서 과거로
넘어온다는 걸 알 수 있죠.

00:55:47.170 --> 00:55:49.507
동연아, 서연아 어디
있느냐라는 대사에서 함묘진은

00:55:49.607 --> 00:55:52.259
어머니의 처녀 시절
이야기, 어린 시절이죠?

00:55:52.359 --> 00:55:54.192
인물들을 무대로 등장하게 한다.

00:55:54.292 --> 00:55:57.407
그러니까 동연, 서연이가
등장하게 하는 거니까 적절하죠.

00:55:57.507 --> 00:56:00.555
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
커요라는 대사에서 조승인은

00:56:00.655 --> 00:56:04.933
등장인물의 행동을 평하면서도 다른
인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.

00:56:05.033 --> 00:56:07.662
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갈등이 유발되는
건 절대 아닐 거 아니에요.

00:56:07.762 --> 00:56:11.178
동연과 서연은 예술관에 대한
갈등이지 목소리가 크다,

00:56:11.278 --> 00:56:13.549
조승인 때문에 갈등이 나타난
것도 역시 아니죠.

00:56:13.649 --> 00:56:15.948
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.

00:56:16.048 --> 00:56:20.327
4번은 서연은 쓸데없는 주장으로
저를 괴롭힙니다라는 대사에서

00:56:20.427 --> 00:56:23.845
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 처녀 시절
이야기 속 갈등의 한 축으로서

00:56:23.945 --> 00:56:26.315
서연과 동연이 갈등하고
있다는 걸 알 수 있죠.

00:56:26.415 --> 00:56:29.643
돌로도 부처님을 ~ 안 될 건
없지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

00:56:29.743 --> 00:56:32.245
작품의 주제 의식을 전달하는
인물 중 하나이다.

00:56:32.345 --> 00:56:33.356
서연은 왜?

00:56:33.456 --> 00:56:36.278
돌로도 부처님을 만드는데
물로 만들어도 괜찮지 않아?

00:56:36.378 --> 00:56:38.940
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물로
만들어도 괜찮은 거잖아요.

00:56:39.040 --> 00:56:42.465
그러니까 물로 형상이 뚜렷이
없는 것도 부처님의 마음만

00:56:42.565 --> 00:56:44.813
들어가 있으면 괜찮다고
얘기하는 거니까

00:56:44.913 --> 00:56:48.029
주제 의식을 전달하는
인물로 적절한 거겠죠.

00:56:48.129 --> 00:56:51.001
여기까지 문제 살펴봤는데, 6번까지
문제 살펴봤는데 상당히 어렵죠?

00:56:51.101 --> 00:56:52.139
어려워요.

00:56:52.239 --> 00:56:53.723
이게 수능 시험 문제였거든요.

00:56:53.823 --> 00:56:56.994
문제도 상당히 많아졌고,
내용도 상당히 길어졌습니다.

00:56:57.094 --> 00:57:01.019
다음 장 그러면 한번 넘어가
볼게요, 다음 장.

00:57:01.119 --> 00:57:03.563
그러면 앞으로 출제되는
경향도 이런 내용들이

00:57:03.663 --> 00:57:05.084
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

00:57:05.184 --> 00:57:07.226
실제 수능에서 이런
내용들이 많아요.

00:57:07.326 --> 00:57:09.500
뒷장을 한번 넘겨 보실까요?

00:57:09.600 --> 00:57:12.962
뒷장 넘기면 시조
세 편이 나옵니다.

00:57:13.062 --> 00:57:15.760
여러분, 유형 연습
두 번째로 한번 가 볼게요.

00:57:15.860 --> 00:57:23.427
이 문제는 보면 역시 이것도
화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,

00:57:23.527 --> 00:57:25.593
어떤 생각을 가지고
있는지, 어떤 상황인지

00:57:25.693 --> 00:57:27.207
이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

00:57:27.307 --> 00:57:31.041
여러분, 1번 문제를 보시면 (가)와
(다)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

00:57:31.141 --> 00:57:32.917
알맞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.

00:57:33.017 --> 00:57:36.397
공통점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

가장 쉬운 작품 하나 골라서

00:57:36.497 --> 00:57:40.320
선택지 지워나가면서 이렇게
푸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

00:57:40.420 --> 00:57:43.264
2번 보시면 (가)와 (나)에
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.

00:57:43.364 --> 00:57:46.728
(가)와 (나)의 시 구절,
표현법 이런 것들을

00:57:46.828 --> 00:57:48.557
전부 다 묻는 문제에 해당됩니다.

00:57:48.657 --> 00:57:51.775
3번을 보니까 (다)와 보기를
비교해서 감상한 것으로

00:57:51.875 --> 00:57:53.267
적절하지 않은 건데.

00:57:53.367 --> 00:57:57.177
정극인의 상춘곡이라고 하는 이 작품도
여러분 좀 필수적인 작품입니다.

00:57:57.277 --> 00:57:59.549
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
올라가면 필수적인 작품이니까

00:57:59.649 --> 00:58:01.152
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

00:58:01.252 --> 00:58:03.000
내용을 한번 가 볼게요.

00:58:03.100 --> 00:58:07.565
천만리 머나먼 길에
고은 님을 여희옵고.

00:58:07.665 --> 00:58:11.010
여희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
이별하고, 이런 뜻이에요.

00:58:11.110 --> 00:58:16.324
내 마음 둘 데 없어, 이건
정말 읽을 수 있죠, 여러분?

00:58:16.424 --> 00:58:18.369
읽을 수 있다고 믿을게요.

00:58:18.469 --> 00:58:23.464
이거 혹시 못 읽는 분은
무얼 하시냐면 제 강의 중에

00:58:23.564 --> 00:58:28.409
얼마 전에 찍은 강의 중에 꿀특강
첫 번째 1강 OT 부분을 보면

00:58:28.509 --> 00:58:30.665
고전 읽기 방법 이런
거 설명해놨거든요.

00:58:30.765 --> 00:58:33.716
다시 한번 좀 보시고 이거 다시
보시면 좋습니다, 아시겠죠?

00:58:33.816 --> 00:58:38.990
내 마음 둘 데 없어서 냇가에
앉아 있으니 저 물도 내 안,

00:58:39.090 --> 00:58:42.321
안이라고 하는 게 무슨
뜻이냐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.

00:58:42.421 --> 00:58:44.519
내 마음 같아서, 직유법이죠?

00:58:44.619 --> 00:58:46.896
우러, 울면서 밤길을 네 놋다.

00:58:46.996 --> 00:58:49.324
울면서 밤길을 가는구나,
이런 뜻입니다.

00:58:49.424 --> 00:58:53.006
여기에서는 고은 님과
이별하였다는 게 중요하고요.

00:58:53.106 --> 00:58:55.980
그다음에 저 물도 내 마음
같다니까 감정이입이 쓰였어요.

00:58:56.080 --> 00:58:59.060
여기 나오는 님이라고 하는
것은 사실은 누구냐면

00:58:59.160 --> 00:59:00.551
단종 임금을 얘기합니다.

00:59:00.651 --> 00:59:03.837
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문제를 푸는
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.

00:59:03.937 --> 00:59:05.965
다만 해석할 때 여러분이
뭘 중심으로 보냐면

00:59:06.065 --> 00:59:08.755
시조는 초장, 중장,
그다음에 종장 볼 때

00:59:08.855 --> 00:59:11.966
초장, 중장은 상황을
나타내는 거고요.

00:59:12.066 --> 00:59:15.145
이게 바로 화자의 정서를
나타내는 거예요, 맨 마지막이.

00:59:15.245 --> 00:59:18.343
그러니까 울고 싶다, 저
물도 내 마음 같다.

00:59:18.443 --> 00:59:21.428
그래서 울면서 가고 있다
그랬으니까 화자의 마음이죠.

00:59:21.528 --> 00:59:25.054
화자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
님과 이별한 상황이고요.

00:59:25.154 --> 00:59:27.336
슬프다, 이게 바로
화자의 정서입니다.

00:59:27.436 --> 00:59:29.618
그다음에 청초 우거진 골짜기에.

00:59:29.718 --> 00:59:33.893
청초, 푸른 풀이 우거진
골짜기에 자난다, 누어난다.

00:59:33.993 --> 00:59:36.636
난다는 옛날에 의문형 어미였습니다.

00:59:36.736 --> 00:59:38.764
자느냐 누웠느냐.

00:59:38.864 --> 00:59:40.931
홍안을 어디 두고 백골만 무쳤느냐.

00:59:41.031 --> 00:59:44.040
홍안은 붉은색 얼굴인데,
예쁜 얼굴을 뜻하는 거예요.

00:59:44.140 --> 00:59:45.290
여인의 예쁜 얼굴.

00:59:45.390 --> 00:59:46.493
백골만 무쳤느냐.

00:59:46.593 --> 00:59:49.016
백골이라고 하면 죽음을
나타내고 있죠.

00:59:49.116 --> 00:59:50.701
그러니까 누군가 죽었어요.

00:59:50.801 --> 00:59:55.951
잔 자바, 잔을 잡아서 권할 이,
권할 사람이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,

00:59:56.051 --> 00:59:57.894
그것을 슬퍼하노라 이런 뜻입니다.

00:59:57.994 --> 01:00:01.850
그러면 이거는 작품 배경 이야기를
설명하면 황진이가 죽었거든요.

01:00:01.950 --> 01:00:05.821

그래서 잔을 잡아 권할
사람, 황진이가 죽었으니까

01:00:05.921 --> 01:00:07.794
그것을 슬퍼한다 이렇게
얘기하는 거죠.

01:00:07.894 --> 01:00:11.091
특히 홍안과 백골이라고 하는
게 색채 대비도 쓰였습니다.

01:00:11.191 --> 01:00:15.170
그다음에 흥망이 유수하니,
흥하고 망하는 것이 유수,

01:00:15.270 --> 01:00:18.522
운수에 달려 있으니
만월대도 추초로다.

01:00:18.622 --> 01:00:21.506
흥망이 유수하니 만월대도 추초로다.

01:00:21.606 --> 01:00:24.626
만월대라고 하는 게 뭐냐면
개성 지방에 있었던

01:00:24.726 --> 01:00:28.005
고려의 수도가 망한 거예요,
고려가 망한 겁니다.

01:00:28.105 --> 01:00:29.806
만월대도 추초로다.

01:00:29.906 --> 01:00:32.872
만월대도 가을 풀밖에 남지 않았어.

01:00:32.972 --> 01:00:35.681
가을 풀이 보통 쓸쓸함이나 이런
것들을 나타내고 있거든요.

01:00:35.781 --> 01:00:39.536
고려의 왕궁 터 자체가,
왕궁의 터 자체가

01:00:39.636 --> 01:00:41.586
지금 전부 다 망해버렸으니까
없다는 거죠.

01:00:41.686 --> 01:00:46.465
오백 년 왕업이, 왕조의
업적이 목적에 부쳐 있으니.

01:00:46.565 --> 01:00:48.987
목동의 피리소리에 붙어 있으니.

01:00:49.087 --> 01:00:52.625
그러니까 목동의 피리, 노래만
500년 왕조의 업적,

01:00:52.725 --> 01:00:54.634
고려 왕조의 업적이

남아 있다는 거예요.

01:00:54.734 --> 01:00:57.637
석양에, 석양이라고 하는
게 해가 지는 거죠?

01:00:57.737 --> 01:01:00.748
물론 시간 배경을 나타내고
있겠지만, 석양이라고 하는 건

01:01:00.848 --> 01:01:03.212
해가 중천에 떠 있을
때는 두 가지.

01:01:03.312 --> 01:01:07.689
임금이 은총을 내리거나 아니면
왕조가 번성할 때라면

01:01:07.789 --> 01:01:10.799
해가 졌다는 얘기는 역시 두 가지.

01:01:10.899 --> 01:01:13.654
임금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
왕조가 멸망했거나.

01:01:13.754 --> 01:01:16.195
그럼 여기에서는 왕조의
멸망을 나타냅니다.

01:01:16.295 --> 01:01:20.048
석양에 지나는 객이, 이 객은
바로 누구를 뜻하는 거냐면

01:01:20.148 --> 01:01:21.753
화자를 뜻하는 겁니다.

01:01:21.853 --> 01:01:24.934
석양에 지나는 객이
눈물겨워하는구나 이런 뜻이죠.

01:01:25.034 --> 01:01:27.304
결국 화자의 슬픔을
나타내고 있습니다.

01:01:27.404 --> 01:01:32.155
이 작품 자체는 500년
왕조의 업적이 망했다고 하면

01:01:32.255 --> 01:01:34.177
무조건 고려가 멸망했다는 거겠죠.

01:01:34.277 --> 01:01:37.034
조선시대 사람들이 시를 쓸 때
우리나라가 500년 될 거야,

01:01:37.134 --> 01:01:38.221
이건 아닐 거잖아요, 그렇죠?

01:01:38.321 --> 01:01:40.585
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겹다.

01:01:40.685 --> 01:01:44.927
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한 것에 대한
한탄이 나타나 있는 작품입니다.

01:01:45.027 --> 01:01:46.526
어휘 풀이 됐고요.

01:01:46.626 --> 01:01:47.727
지문 소화제 보겠습니다.

01:01:47.827 --> 01:01:50.610
(가)의 화자는 져 물과
대조적인 상황이 아니고

01:01:50.710 --> 01:01:52.812
져 물과 내가 똑같다
이렇게 얘기했으니까.

01:01:52.912 --> 01:01:56.309
(나)에서 시적 대상에, 시적
대상은 죽은 사람이잖아요.

01:01:56.409 --> 01:01:58.199
현재 상태를 나타낸
시어는 백골이죠.

01:01:58.299 --> 01:02:03.451
(다)는 선경 후정의 방식을 통해서
시상을 전개했다 그랬는데.

01:02:03.551 --> 01:02:06.871
선경 후정은 뭐냐면 먼저
경치 감상한 거예요.

01:02:06.971 --> 01:02:08.828
그다음에 화자가 뭔가를 느낀 거죠.

01:02:08.928 --> 01:02:12.685
첫 번째, 두 번째 보니까 만월대도
추초고, 목적에 붙어 있으니

01:02:12.785 --> 01:02:14.049
그 모습을 본 거죠.

01:02:14.149 --> 01:02:17.333
그리고 석양에 지내는 객이
눈물겹다라고 얘기했으니까

01:02:17.433 --> 01:02:18.820
화자의 정서가 나타나 있죠.

01:02:18.920 --> 01:02:21.682
특히 맨 마지막에 나오는
지나는 객이라고 하는 것은

01:02:21.782 --> 01:02:23.623
바로 화자 자신을 나타낸 겁니다.

01:02:23.723 --> 01:02:29.456
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화자를
객관화하여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하죠.

01:02:29.556 --> 01:02:30.683
1번 보겠습니다.

01:02:30.783 --> 01:02:33.809
(가)~(다)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
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그랬는데.

01:02:33.909 --> 01:02:35.321
정답은 1번이 정답이에요.

01:02:35.421 --> 01:02:37.561
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
안타까움인데.

01:02:37.661 --> 01:02:40.556
(가)에서는 님을 여의었고,
두 번째는 뭐야?

01:02:40.656 --> 01:02:43.062
백골이 묻혔다는 게 대상이
죽었다는 얘기죠.

01:02:43.162 --> 01:02:46.965
(다)에서는 고려 왕국이
멸망했다는 거니까

01:02:47.065 --> 01:02:49.793
고려 왕조도 역시
마찬가지로 없다는 거니까

01:02:49.893 --> 01:02:52.570
1번이 정답이 되겠죠.

01:02:52.670 --> 01:02:55.867
자신의 궁핍한 처지가 나와
있는 건 없더라고요.

01:02:55.967 --> 01:02:58.031
예기치 않은 이별로
인한 서러운 심정.

01:02:58.131 --> 01:03:00.773
예기치 않은 이별로 인한
서러운 심정이라고 하면

01:03:00.873 --> 01:03:03.912
(가) 작품과 (나) 작품 같은
경우는 예기치 않은 이별이라고

01:03:04.012 --> 01:03:05.348
얘기할 수 있습니다.

01:03:05.448 --> 01:03:08.548
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에
대한 경외감이라고 했는데.

01:03:08.648 --> 01:03:11.554
경외감은 존경하면서
두려워하다, 이런 뜻이에요.

01:03:11.654 --> 01:03:14.432
자신의 이념과 배치되는
현실에서 느끼는 실망감.

01:03:14.532 --> 01:03:17.280
자신의 이념이 있는데
그걸 추구하고자 하는데

01:03:17.380 --> 01:03:18.932
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.

01:03:19.032 --> 01:03:20.883
이 내용도 세 개 다 없더라고요.

01:03:20.983 --> 01:03:22.318
정답 1번입니다.

01:03:22.418 --> 01:03:24.156
(가), (나)에 대한 이해로
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1:03:24.256 --> 01:03:27.947
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은 님
여희옵고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.

01:03:28.047 --> 01:03:31.327
왜 과장된 표현이냐면 천만리
머나먼 길이라고 하는 게

01:03:31.427 --> 01:03:37.372
우리나라가 무궁화 삼천리
화려강산이잖아요.

01:03:37.472 --> 01:03:41.183
삼천리밖에 안 되는데,
천만리니까 만리라고 하는 게

01:03:41.283 --> 01:03:43.321
과장된 표현입니다, 아시겠죠?

01:03:43.421 --> 01:03:45.633
님과 이별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.

01:03:45.733 --> 01:03:46.846
적절하고요.

01:03:46.946 --> 01:03:48.325
져 물도 내 안 같아요.

01:03:48.425 --> 01:03:50.331
인간과 자연물을 동일시하고 있다.

01:03:50.431 --> 01:03:52.662
감정이입이 나타나는
거니까 적절하죠.

01:03:52.762 --> 01:03:58.235
3번을 보니까 (가)의 밤길
녜놋다는 캄캄한 밤의 속성을 통해서

01:03:58.335 --> 01:04:00.335

화자의 암담한 심경을
나타내고 있다.

01:04:00.435 --> 01:04:04.657
밤길 가고 있는 거니까 암담한 심경,
캄캄한 심경이니까 적절하겠죠.

01:04:04.757 --> 01:04:09.847
(나)의 홍안을 어듸 두고 백골만
무쳤는다에서 시어의 대비를 통해서.

01:04:09.947 --> 01:04:13.669
홍안과 백골이라고 하는 게 삶과
죽음 이런 대비도 되겠고,

01:04:13.769 --> 01:04:15.042
색채 대비도 가능합니다.

01:04:15.142 --> 01:04:16.880
화자의 무상감을 나타내고 있다.

01:04:16.980 --> 01:04:18.824
무상감이라고 하는 게
뭐죠, 여러분?

01:04:18.924 --> 01:04:22.772
무상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지나고
나니까 허무하더라 이런 뜻입니다.

01:04:22.872 --> 01:04:24.810
잔 잡아 권할 사람이 없어요.

01:04:24.910 --> 01:04:28.748
각박한 세태의 제시를 통해서
속세에서, 전혀 엉뚱합니다.

01:04:28.848 --> 01:04:31.826
그러니까 잔을 잡아서 한잔
권할 사람, 한잔하고 싶은

01:04:31.926 --> 01:04:35.972
그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안타깝다,
아쉽다 이런 얘기만 나와 있죠.

01:04:36.072 --> 01:04:38.977
3번을 보면 보기를
비교해 감상한 내용으로

01:04:39.077 --> 01:04:41.360
적절하지 않은 것을
찾아라라고 얘기했는데.

01:04:41.460 --> 01:04:43.002
보기 내용이 글씨가 좀 보일까요?

01:04:43.102 --> 01:04:44.980
여러분 책을 좀
보십시오, 이럴 때는.

01:04:45.080 --> 01:04:46.323
책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.

01:04:46.423 --> 01:04:48.895
이게 한 칸에 다 들어가기가,
사진 파일이거든요.

01:04:48.995 --> 01:04:53.376
그래서 해석이 좀,
화면이 좀 안 보일 겁니다.

01:04:53.476 --> 01:04:54.639
화면 보지 마시고요.

01:04:54.739 --> 01:04:56.202
여러분 책을 보시면 됩니다.

01:04:56.302 --> 01:04:58.010
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.

01:04:58.110 --> 01:05:00.059
우선 해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.

01:05:00.159 --> 01:05:02.638
이 정도 해석이 되셔야
문제를 풀 수 있겠죠.

01:05:02.738 --> 01:05:05.917
홍진에 뭇친 분네,
홍진에 묻힌 분들이요.

01:05:06.017 --> 01:05:07.488
홍진은 속세를 뜻하는 말이고.

01:05:07.588 --> 01:05:09.045
이내 생애 어떠합니까?

01:05:09.145 --> 01:05:10.112
대단하지 않습니까?

01:05:10.212 --> 01:05:11.370
자부심이 나타나 있어요.

01:05:11.470 --> 01:05:14.011
옛사람 풍류를 미칠까요,
못 미칠까요.

01:05:14.111 --> 01:05:17.512
옛사람들의 풍류에 미칠 수
있을까요, 못 미칠까요?

01:05:17.612 --> 01:05:20.653
천지간 남자 몸이
날만 한이 하건마는.

01:05:20.753 --> 01:05:24.985
나만 한 사람이 많지만, 산림에
뭇쳐 이셔 지락을 마랄 것가.

01:05:25.085 --> 01:05:27.676
지극한 즐거움을 마다하겠는가.

01:05:27.776 --> 01:05:30.581

그러면 여기에서 홍진이라고 하는
것과 산림이라고 하는 것이

01:05:30.681 --> 01:05:32.208
서로 대비가 됩니다.

01:05:32.308 --> 01:05:35.161
홍진은 속세고요, 산림이라고
하는 건 자연이니까.

01:05:35.261 --> 01:05:37.169
수간모옥을 벽계수 앞에 두고.

01:05:37.269 --> 01:05:40.244
수간모옥은 초가집인데,
벽계수, 시냇물 앞에 두고

01:05:40.344 --> 01:05:43.595
송죽 울울리에, 소나무,
대나무 울창한 속에

01:05:43.695 --> 01:05:45.362
풍월 주인이 되었구나.

01:05:45.462 --> 01:05:48.246
화자가, 자기 자신이
풍월 주인이 되었구나.

01:05:48.346 --> 01:05:50.761
엇그제 겨울 지나 새
봄이 돌아왔어요.

01:05:50.861 --> 01:05:53.850
도화 행화는 석양 속에
피어 있고, 도화 행화.

01:05:53.950 --> 01:05:55.312
도화가 뭐지?

01:05:55.412 --> 01:05:57.153
복숭아 꽃하고 살구 꽃입니다.

01:05:57.253 --> 01:05:59.921
석양리에 피어 있고,
석양 속에 피어 있고.

01:06:00.021 --> 01:06:02.166
녹양 방초는 세우 중에 프르도다.

01:06:02.266 --> 01:06:04.138
가랑비 속에 푸르다.

01:06:04.238 --> 01:06:05.713
색채 대비가 나타납니다.

01:06:05.813 --> 01:06:07.744
도화 행화는 무조건
붉은 색이거든요.

01:06:07.844 --> 01:06:10.171
녹양 방초는 녹색이니까 색채 대비.

01:06:10.271 --> 01:06:13.053
칼로 말아낸가, 마름질 했는가.

01:06:13.153 --> 01:06:15.859
붓으로 그려 냈는가,
붓으로 그려냈나요.

01:06:15.959 --> 01:06:18.401
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롭다.

01:06:18.501 --> 01:06:24.143
조물주의 신기한 재주가 사물
하나하나마다 야단스럽다 이런 뜻입니다.

01:06:24.243 --> 01:06:27.167
여러분, 보시면 (다)와
보기는 동일한 음보인데,

01:06:27.267 --> 01:06:30.605
이거는 둘 다 4음보가 쓰였어요,
둘 다 4음보입니다.

01:06:30.705 --> 01:06:35.683
(다) 작품은 시조니까 시조는
4음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.

01:06:35.783 --> 01:06:39.915
그다음에 3번을 보시면 3번의
정극인의 상춘곡은 가사 작품인데요.

01:06:40.015 --> 01:06:42.081
4음보입니다, 가사는 4음보거든요.

01:06:42.181 --> 01:06:43.276
끊어 볼까요?

01:06:43.376 --> 01:06:46.174
홍진에 뭇친 분네 이내
생에 엇더 한고.

01:06:46.274 --> 01:06:49.024
옛 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.

01:06:49.124 --> 01:06:50.606
4음보입니다.

01:06:50.706 --> 01:06:54.633
(다)는 보기와 달리 이질적 공간을
대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.

01:06:54.733 --> 01:06:56.904
(다)에서는 이질적 공간이
대비되는 게 없습니다.

01:06:57.004 --> 01:06:59.226
(다)에서는 만월대만 나왔죠.

01:06:59.326 --> 01:07:03.366
그런데 보기에서는 이질적
공간이 나왔어요.

01:07:03.466 --> 01:07:04.418
뭔데요?

01:07:04.518 --> 01:07:07.582
아까 얘기했던 홍진과 산림이라고
하는 게 이질적이죠.

01:07:07.682 --> 01:07:09.134
정답은 2번입니다.

01:07:09.234 --> 01:07:10.989
(다)에서는 침울한 분위기입니다.

01:07:11.089 --> 01:07:12.026
왜?

01:07:12.126 --> 01:07:13.827
눈물겨워하노라라고 얘기했으니까.

01:07:13.927 --> 01:07:15.060
들뜬 분위기다, 맞죠.

01:07:15.160 --> 01:07:17.299
봄이 너무 좋은 거니까
들뜬 분위기 맞습니다.

01:07:17.399 --> 01:07:20.108
석양은 화자의 정서가
심화되는 배경이죠?

01:07:20.208 --> 01:07:21.389
더 쓸쓸해지는 거니까.

01:07:21.489 --> 01:07:23.955
보기의 석양은 경치를
돋보이게 하는 배경이다.

01:07:24.055 --> 01:07:25.009
어딘데?

01:07:25.109 --> 01:07:28.608
석양 속에 푸르도다라고 얘기했으니까
경치를 더욱 돋보이는 거죠.

01:07:28.708 --> 01:07:30.743
화자가 혼잣말을 하는 방식이다.

01:07:30.843 --> 01:07:31.709
왜?

01:07:31.809 --> 01:07:34.779
(다) 작품은 어떤 대상이 없어요.

01:07:34.879 --> 01:07:37.046
다시 말하면 청자가
없는데, 이게 어렵죠?

01:07:37.146 --> 01:07:39.452
보기는 화자가 청자에게
말을 건네는 방식.

01:07:39.552 --> 01:07:40.495
뭔데?

01:07:40.595 --> 01:07:41.636
첫 번째 줄입니다.

01:07:41.736 --> 01:07:44.717
홍진에 묻힌 분들이여
이내 생애 어떠합니까?

01:07:44.817 --> 01:07:48.017
이게 바로 뭐냐면 말을 건네는
방식이라고 얘기하죠.

01:07:48.117 --> 01:07:49.401
됐습니까?

01:07:49.501 --> 01:07:50.865
여러분, 여기까지입니다.

01:07:50.965 --> 01:07:54.057
여기까지 첫 번째 유형
연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01:07:54.157 --> 01:07:55.894
첫 번째 유형은 화자입니다.

01:07:55.994 --> 01:07:59.691
화자의 상황, 정서, 태도를
파악하시면서 문제를 푸는 게

01:07:59.791 --> 01:08:02.482
가장 핵심 포인트였습니다,
아시겠죠?

01:08:02.582 --> 01:08:05.690
다음 장에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.

01:08:05.790 --> 01:08:07.099
시어가 먼저 나오는군요?

01:08:07.199 --> 01:08:11.356
시어의 함축적 의미 이런 것들
중심으로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.

01:08:11.456 --> 01:08:12.363
여러분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

01:08:12.463 --> 01:08:14.023
수고하셨습니다.